인민의 나라

차 례

머 리 말

오늘 조선인민은 참다운 인민의 나라,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발전을 위하여 한마음한뜻으로 힘차게 일해나가고있다.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령도따라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주체조선의 찬란한 미래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는 조선인민의 마음을 담아 《애국가》의 선률이 장중하게 울리고있다.

1. 아침은 빛나라 이 강산 은금에 자원도 가득한
   삼천리 아름다운 내 조국 반만년 오랜 력사에
   찬란한 문화로 자라난 슬기론 인민의 이 영광
   몸과 맘 다바쳐 이 조선 길이 받드세
   찬란한 문화로 자라난 슬기론 인민의 이 영광
   몸과 맘 다바쳐 이 조선 길이 받드세

2. 백두산기상을 다 안고 근로의 정신은 깃들어
   진리로 뭉쳐진 억센 뜻 온 세계 앞서나가리
   솟는 힘 노도도 내밀어 인민의 뜻으로 선 나라
   한없이 부강하는 이 조선 길이 빛내세
   솟는 힘 노도도 내밀어 인민의 뜻으로 선 나라
   한없이 부강하는 이 조선 길이 빛내세

노래는 위대한 수령을 높이 모시고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조선인민의 크나큰 민족적긍지와 자부심,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 끝없이 부강번영할 조국을 영원히 빛내여가려는 그들의 드팀없는 의지를 반영한 송가이다.

가사에서는 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친 조선인민의 높은 혁명정신과

창조적인 투쟁에 의하여 반드시 강위력하고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로 세상에 빛을 뿌리게 되리라는 굳은 확신과 영원히 인민의 나라로 강화발전시켜갈 뜨거운 열정과 확고한 의지가 맥박치고있다.

오늘 조선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날이 갈수록 만방에 그 위용을 더욱 높이 떨치고있다.

자기가 선택한 사회주의길을 따라 꿋꿋이 전진하는 조선의 모습!

험산험로를 헤치며 5 천년민족사의 꿈과 리상, 포부를 다 안고 장쾌하게 일떠서는 조선의 모습!

그 모습을 보며 세계인민들은 경탄을 금치 못해하며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를 물어보군 한다.

그 비결은 바로 조선이 인민을 가장 귀중한 존재로 내세우고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도록 하며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풀어온 진정한 인민의 나라라는데 있다.

인민의 나라, 여기에 그 어느 나라에도 없는, 그 누구도 가질수도 흉내낼수도 없는 조선의 참모습이 있다.

1. 인민을 가장 귀중한 존재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은 자기의 붉은 기폭에 마치와 낫과 붓을 아로새긴 때로부터 인민과 한시도 떨어져본적이 없으며 언제나 인민을 하늘처럼 섬기며 혁명을 전진시켜왔습니다.》

인민에 대한 관점과 립장은 사회주의의 과학성과 우월성을 규정짓는 기본척도이다.

인민대중은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하는 기본요인이다. 이 세상에서 인민대중보다 더 귀중하고 힘있는 존재는 없다. 하기에 사회주의의 기초는 인민이라고 하는것이다.

인민대중을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로, 만능의 선생으로, 하늘로 떠받드는것은 인민의 나라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고 이끌어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뜻이였고 오늘은 만방에 그 위용을 높이 떨쳐나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확고한 의지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성과적으로 개척하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승리적으로 전진시키시였으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시는 조선혁명의 력사는 인민대중을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고 힘있는 존재로 내세운 성스러운 년대기로 빛나고있다.

△ 이민위천

이민위천은 사회주의조선을 일떠세우고 전진시켜오시였으며 빛내여나가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좌우명이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지니

신 이민위천이라는 좌우명은 력사의 주체인 인민대중의 절대적지위와 결정적역할에 대한 가장 과학적인 견해에 기초하고있으며 인민대중에 대한 숭고한 사랑에 그 뿌리를 두고있다.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이시기에 이 땅에 펼쳐진 모든것은 인민을 위한것이였고 조선은 진정한 인민의 나라,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국가로 빛나고있다.

- 하늘처럼 숭배하는 대상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일성동지의 한생은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고 사상과 령도에 구현하여 현실로 꽃피우신 인민적수령의 숭고한 한생이였다.》

숭배란 말은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마음이며 최고의 존경심을 가지고 가장 열렬히 우러르고 받드는 자세와 립장이다. 인민을 가장 열렬히 존중하고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는 가장 진실하고 공고한 헌신의 마음이라는데 인민에 대한 숭배의 근본특징이 있다.

인민숭배는 인민대중에 대한 존중의 최고표현이다. 어느 한두사람이나 개별적집단이 아닌 근로하는 인민대중모두를 숭배의 대상으로 여기고 가장 높이 내세워주어야 한다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사상관점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해방전 천도교 령북지방 도정이였던 박인진에게 하신 교시는 새겨볼수록 그 의미가 깊이 안겨온다.

박인진도정은 조선의 민족종교인 천도교에 입도한 후 천도교의 여러급의 교직을 맡아보다가 1932 년에 지원포의 도정으로 활동하였다. 당시 천도교는 전국적으로 29 개의 포를 설치하고있었는데 주로 풍산, 삼수, 갑산, 장백 등지를 포괄하던 지원포는 전국적으로 가장 큰 포조직이였다.

이런 점을 고려해보면 그가 천도교단에서 상당한 지위에 있었다는것을 짐작할수 있다.

박인진이 위대한 수령님을 뵈오러 밀영에 들어온것은 주체 25(1936)년 초겨울이였다.

그가 며칠을 두고 낮에 밤을 이어 위대한 수령님과 국내외의 정세문제로부터 민족운동의 실태, 항일혁명투쟁의 발전과정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의견을 교환하던 어느날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청수봉전시간(천도교에서 맑은 물을 놋그릇에 떠놓고 제를 지내는 시간)을 잊지 않으시고 전령병을 시켜 청수 한그릇을 내오게 하신 다음 청수봉전을 권하시였다. 도정은 감히 장군님앞에서 어찌 청수봉전을 하겠느냐고 굳이 사양하였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신앙심이 강한 도정님이 교의 법도를 한번이라도 어겨서야 되겠는가고 하시며 거듭 권고하시였다.

사양과 권고가 오고가던 끝에 더는 어쩔수 없었던 도정은 주문을 외우고나서 물 한모금을 마시였다. 그런뒤 도정은 위대한 수령님께 《제가 꼭 여쭈어 알고싶은 일이 한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한울님을 숭상하듯이 장군도 숭상하는 대상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라고 심중의 말씀을 올리였다.

한울님이라면 천도교에서 세계의 시원이며 만물의 근원이라고 보는 《지기》의 실체를 가리키는 말로서 최고의 숭배대상을 의미하는것이였다.

보통상식으로 볼 때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종교인들처럼 어떤 대상을 숭상한다는것은 도저히 있을수 없는 일이다.

박인진도정도 공산주의자들이 신을 믿지 않는다는것을 결코 모를리는 없었다. 그런데 그가 위대한 수령님께 숭상하는 대상이 있는가고 말씀을 올렸으니 참으로 외람된 질문이 아닐수 없었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 종교의 례법을 너무나도 자상히 아시고 깍듯이 존중해주시였으니 그가 비록 외람되기는 하여도 그런 질문을 충

분히 올릴만도 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의 질문에 물론 나에게도 신처럼 숭상하는 대상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인민이다, 나는 인민을 하늘처럼 여겨왔고 인민을 하느님처럼 섬겨오고있다, 나의 하느님은 다름아닌 인민이다, 세상에 인민대중처럼 전지전능하고 위력한 힘을 가진 존재는 없다, 그래서 나는 이민위천을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고있다고 교시하시였다.

하늘처럼 여기고 하늘로 섬기는 인민, 여기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인민중시의 관점이 총체적으로 집약되여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숭상하시는 대상은 인민이였다. 그것도 보통의 마음으로 존경하는것이 아니라 하늘로 떠받드는것이 바로 인민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인민을 하늘로 섬긴다고 하신 교시는 결코 종교신자인 도정의 물음에 대응하는 답변을 주시기 위하여 하신 교시가 아니였다. 인민을 하늘로 여기고 하늘로 떠받드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생활과 투쟁속에 깊이 뿌리내린 하나의 신조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을 듣고난 박인진도정은 자기가 이번에 백두산에 온 보람이 있다고 하면서 이제야 진짜 한울님이 무엇이며 어디에 있는가를 잘 알게 되였다고 확신에 넘쳐 말하였다.

예로부터 하늘은 신비의 대명사로 널리 전해져왔다. 땅이나 물과는 달리 아무리 애써도 알수 없는것은 하늘의 조화였다.

신화는 사람들의 무지에서 뿌리내리고 무지를 동력으로 하여 전파된다. 지난 시기 사람들의 무지로 하여 땅이나 물과 관련해서도 적지 않은 신화들이 나왔지만 그에 비할바없이 많은것은 하늘에 대한 신화였다.

고대의 신화들은 태반이 다 그 시작도 끝도 하늘이다. 고대그리스사람들의 원시적인 표상과 신앙을 반영하고있는 그리스신화에는 제우스, 포세이든, 헤르메스를 비롯한 많은 신화적존재들이 등장하는데 그들모두는 하늘에 《거주》하고있는 신들이다. 신이 모든것을 창조하고 시작하였으며 신이 모든것을 결정한다는것이 고대신화의 일반적인 내용이다.

오랜 세월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미처 까닭을 알수 없는것들을 대할 때마다 하늘을 꺼들이며 숭상하였다. 생각지 않게 우연히 좋은 일을 당하였을 때 하늘이 도왔다고 하거나 근원을 정확히 파헤칠수 없는 난감한 일에 부닥쳤을 때 하늘이나 알 노릇이라고 하였다. 하늘에 대한 숭상은 이렇듯 뿌리깊은것이였다.

바로 이 점에서 기생하여 《하느님》의 이름을 빌어 인간의 운명을 숙명으로 설교하는 각양각색의 종교들이 나왔고 제국주의자들은 강도적이고 반인륜적인 침략교리들을 내놓고 세계를 전쟁과 침략의 도가니속에 빠뜨렸다.

력사적으로 절대적이거나 최고의것의 상징으로 사람들이 써내려오던 하늘의 의미를 전혀 새롭게 쓰신분은 위대한 수령님이시다.

인민은 하늘, 누구도 생각해보지 못하였던 이 독특한 관점은 인민이라는 거대한 실체의 위력과 가치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신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인민관의 응결체이다.

인민을 하늘처럼 믿고 하늘처럼 떠받들어야 한다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생토록 주장해오신 좌우명이다. 력사의 어느 갈피에도 있어본적이 없는 위대한 수령님의 이러한 숭고한 좌우명이 이민위천이라는 네글자에 집대성되여있다.

하늘은 시공간적으로 무한하다. 끝도 알수 없고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펼쳐져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하늘의 이러한 무한성, 절대성을 인민의 최고의 존엄과 가치, 무궁한 지혜와 위력을 상징하는 완전히 새로운 의미로 력사에 새겨주시였다.

력사의 주체인 인민대중을 세상에서 가장 존엄높고 귀중한 존재, 지혜롭고 힘있는 존재로 굳게 믿으시고 그 인민을 최대의 경의를 다해 받드시는 위대한 수령님이 아니시고는 그 누구도 생각조차 할수 없는 숭고한 관점이였다.

인민을 하늘같이 여긴다는 이민위천에는 인민에 대한 숭배사상이 정립되여있다.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의 하늘은 곧 인민이였고 그 인민은 이 세상에서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 가장 귀중한 존재, 가장 지혜롭고 힘있는 존재였다.

인류력사 수백만년에 처음으로 인민을 하늘로 떠받들어 그 존엄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을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모시였기에 이 땅에 인민숭배, 인민사랑의 력사가 흐르게 되였으며 조선은 인민의 나라로 빛을 뿌리게 되였다.

-《10대인민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이민위천은 장군님의 한생의 좌우명이였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이 세상에 전지전능한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하느님이 아니라 인민이라고 하시였으며 인민이 있어 나라도 있고 조국도 있다는것이 우리 장군님의 애국신조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한생의 좌우명이였던 이민위천을 자신의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세상에 전지전능한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하느님이 아니라 인민이며 인민처럼 힘있고 우월하며 지혜로운 존재는 없다고 하시였다.

주체 78(1989)년 정초 어느날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하던 한 일군이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을 받은 기회에 고심어린 노력끝에 자기가 생각하여 묶어본 위대한 장군님의 《10대인민관》에 대한 가르치심을 받기 위하여 정히 쓴 문건을 수령님께 드린적이 있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가장 열렬히 숭배하는 《하느님》은 인민

② 가장 높이 존경하는 선생은 인민

③ 제일 힘있는 존재는 인민

④ 제일 재능있는 창조자는 인민

⑤ 제일 강한 무기는 인민의 일심단결

⑥ 가장 큰 념원은 자주성이 실현된 인민의 락원건설

⑦ 가장 큰 기쁨은 인민의 행복

⑧ 가장 큰 괴로움은 인민의 불행

⑨ 가장 큰 분노는 인민의 존엄과 리익에 대한 침해

⑩ 제일 사랑하는 좌우명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

문건을 받아 다 읽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동무가 흥미있고 통속적으로 묶어놓은 **김정일**동지의 10대인민관은 어느 조항이나 **김정일**동지의 말에 기초한것이므로 보충할것도 덜것도 없다고, **김정일**동지의 인민관이자 나의 인민관이다, 말하자면 **김일성**의 인민관이자 **김정일**의 인민관이라고 교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김정일**동지처럼 인민을 숭배하고 존대하며 사랑하는 위인은 이 세상에 없다, **김정일**동지의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랑은 인민을 하늘처럼 믿고 선생으로 존대하며 인민들과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고 운명도 같이하는 숭고한 인민관에서 흘러나온다고 교시하시였다.

조선로동당의 붉은 기폭에는 로동자, 농민, 지식인을 상징하는 마치와 낫과 붓이 새겨져있다. 이것을 놓고 보아도 인민을 얼마나 신성히, 높이 떠받드는가 하는것을 잘 알수 있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함께 현지지도의 길에서 돌아오시다가 조선로동당기를 바라보시며 이야기를 나누신적이 있었다.

펄럭이는 당기를 바라보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

당기는 바라볼수록 마음이 숭엄해진다고 말씀드리였다.

그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신의 혁명활동의 나날들을 감회깊이 회고하시다가 나는 원래 하느님을 믿지 않는다, 그러나 나의 마음속에 하느님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아닌 인민이다, 그래서 당을 창건하면서 그 기폭에 인민대중의 모습을 새겨넣었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되새겨보시며 좀처럼 발걸음을 떼지 못하시다가 동행한 일군들에게 저 붉은 기폭에는 인민대중 다시말하여 로동자, 농민, 지식인의 모습이 새겨져있다, 인민대중은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아름답다, 그러기에 나는 인민대중을 열렬히 숭배한다고 교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우리 사회에서는 인민이 하늘이다, 인민들이 바란다면 돌우에도 꽃을 피우고 하늘의 별도 따와야 한다, 이것은 수령님의 좌우명이자 나의 좌우명이라고 절절히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생전에 인민들로부터 《우리》라고 불리우는 일군들을 제일 좋아하시며 그런 일군들을 만나시였을 때에는 제일로 기뻐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습관적으로 쓰시는 두가지 교시가 있었다. 하나는 인민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그에 대한 보고를 받으실 때 물으시는 **《인민들이 좋아하오?》**라는것이였고 다른 하나는 일군들이 일을 잘하지 못하여 인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그들이 불편을 느낀다는것을 아실 때 **《인민들이 뭐라고 하겠소?》**라고 하시는 교시였다. 길지 않은 이 교시에 위대한 장군님의 최대의 락, 행복과 기쁨, 가장 큰 괴로움과 분노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것이 집약되여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심중에는 언제나 인민이라는 두 글자가 꽉 차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 90(2001)년 여름 삼복의 무더위속에서 로씨야련방을 방문하실 때였다.

어느날 렬차가 옴스크시를 향하여 달리고있을 때 동행한 한 책

임일군을 부르시여 비행기를 타고 조국에 갈데 대한 과업을 주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으로 떠나는 동무가 부럽다, 나는 수령님께서 계시는 조국으로 돌아갈 날이 아직 멀었는데 동무는 조국에 갔다오게 되였으니 얼마나 좋겠는가, 조국을 떠난지 한주일도 못되였는데 수령님이 그립고 조국인민들, 조국산천이 그립다고 절절히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국을 떠나신지 불과 5일째 되는 날이였다.

모스크바를 가까이하면서 렬차가 조국과 더욱더 멀어져갈수록 위대한 장군님의 마음속에서 사랑하는 조국과 인민에 대한 그리움은 더해만갔다.

한없는 그리움속에 로씨야련방방문을 마치고 조국에 도착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자신께서 로씨야를 방문하는 전기간 조국과 인민을 한시도 잊어본적이 없다, 다른 나라에 오래동안 가있으니 조국과 인민이 무척 그리웠다, 사랑하는 우리 조국, 우리 인민을 잊을수가 없었다고 교시하시였다.

참으로 인민을 가장 열렬히 숭배하신, 인민을 언제나 한가슴에 뜨겁게 안고사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인민의 행복에서 최대의 락, 기쁨을 맛보시며 자신의 행복을 찾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인민관에 떠받들리여 조선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삶이 꽃펴나고 후손만대의 행복이 담보되는 인민의 나라로 빛을 뿌리고있다.

하기에 조선인민은 지금도 펼치면 바다가 되고 쌓으면 하늘에 닿을 위대한 장군님의 한생의 업적을 합치면 인민뿐이라고 노래한 《인민사랑의 노래》를 부르며 한평생 인민을 위하신 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가슴마다에 간직하고있는것이다.

우크라이나 끼예브종합대학의 어느 한 교수 박사는 자기의 격동된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동서고금에 백성들이 나라님을 <하느님>처럼 받들어모셨다는 이야

기는 있어도 나라님이 심부름군이 되여 백성들을 하늘처럼 여겼다는 이야기는 없다.

그러나 인민대중을 가장 위대한 스승으로 열렬하게 숭배하시는 **김정일**동지께서는 기꺼이 심부름군이 되시여 한평생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시고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신다.

인민의 심부름군! 바로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시는 **김정일**동지의 이 정치철학은 전세계인민들로부터 커다란 감동을 불러일으키고있다.》

-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지도사상으로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인민대중제일주의!

이것은 **김일성-김정일**주의가 인민대중을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고 힘있는 존재로 내세우고 모든것을 인민대중을 위해 복무시키며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수 있게 하는 숭고한 혁명사상이라는것이다.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전반체계와 내용은 인민대중을 하늘로 내세우고 인민대중을 위해 참답게 복무하며 인민대중에 철저히 의거하는 인민대중중심의 숭고한 리념으로 일관되여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상조류들과 주의주장들이 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자기의 기본리념, 기본정신으로 하는 사상은 없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김일성-김정일**주의는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제일주의라는 고전적정식화를 주시고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당사업과 당활동에 철저히 구현해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고계신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하늘처럼 여기신 인민을 수령님과 장군님의 영상으로 정히 새겨안고 수령님과 장군님을 모시듯이 받들어야 한다는것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숭고한 인민관이다.

이것은 인민을 하늘로 숭배하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좌우명을 그대로 이어받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만이 지니실수 있는 관점과 립장인것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는 인민대중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로 내세우시고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시며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인민중시, 인민사랑의 정치를 펼치시는 위대한 정치가이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사색과 실천의 첫자리에 언제나 인민을 놓으시고 인민을 하늘로, 스승으로 여기시고 끝없이 사랑하시며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고계신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주체 106(2017)년 신년사에서 자신께서는 티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 인민을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인민의 참된 충복, 충실한 심부름군이 될것을 새해의 이 아침에 엄숙히 맹약하는바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에 접한 인류는 감탄과 격찬을 금치 못해하였다.

인민을 세상에서 제일 신성히, 더 높이 떠받드시겠다는 결심, 인민을 위해 더 많은 일을 찾아하시겠다는 의지, 이것은 숭고한 인덕을 천품으로 지니신 인민의 어버이만이 하실수 있는 말씀이였던것이다.

인덕에 대하여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많이 론의되여왔다. 옛날부터 정치가는 인덕이 높아야 하며 나라는 인덕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말이 전해져왔다.

인류가 한결같이 공경하고 우러르는 인덕의 완전무결한 체현자, 진정한 성인은 바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이시다.

일반적으로 어버이라는 개념은 낳아주고 키워준 아버지와 어머니를 뜻하는 말로 쓰인다. 그러나 이 말은 조선에서 령도자와 인민의 혈연적 뉴대를 반영하는 완전히 새로운 의미로 쓰이고있다.

인민은 누구나 가정의 한 성원이며 가정의 성원이라면 누구에게나

자기를 낳아주고 키워주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기마련이다.

조선인민이 한결같이 받드는 어버이,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진정으로 받들어모시고 따르는 위대한 어버이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오늘 조선인민은 《그이 없인 못살아》의 노래를 부르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끝없이 따르며 충정다해 모시고있다.

…
친근하신 그이의 정 가슴에 흘러
자나깨나 그 숨결로 따뜻한 마음
하늘같은 인덕과 믿음에 끌려
우리모두 따르며 사네
그이 없인 못살아 **김정은**동지
그이 없인 못살아 우린 못살아
우리의 운명 **김정은**동지
그이 없으면 우린 못살아
…

참으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는 조선인민에게 있어서 당과 국가의 최고령도자이시기전에 한없이 인자하면서도 마음의 굳센 기둥으로 되여준 아버지이시고 다심하고 세심한 어머니이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에 의하여 오늘 조선에서는 당과 국가의 전반사업이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철저히 일관되고있다.

네팔기자협회 위원장은 자기의 심정을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진정 인민대중제일주의는 조선의 령도자들의 신앙이다.

이 위대한 신앙이 있어 조선인민은 정신력과 창조력에 있어서 가장 강한 인민으로 될수 있었고 령도자의 두리에 일심단결되여 자력자강의 억센 힘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빛나는 력사를 창조하고있는것이다.

조선로동당 제 7 차대회에서 하신 **김정은**위원장의 폐회사의 한 대목이 세계언론계의 이목을 끌고있다.

<나는 존엄높은 조선로동당의 위원장이라는 무거운 중임을 맡겨준 대표자동지들과 전체 당원들,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최대의 신임과 기대를 심장으로 받아안고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오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의 길에서 이 한몸을 아낌없이 내대고 굴함없이 싸워나갈것이며 설사 몸이 찢기고 쓰러진다 해도 언제 어디서나,어떤 순간에나 변함없이, 사심없이 우리 인민을 높이 받들어 혁명앞에 충실할것을 맹약합니다.>

정녕 인민사랑을 그 어떤 정치적의지나 령도자의 의무로가 아니라 량심으로, 전통으로 지닌분만이 하실수 있는 맹약이라고 생각한다.

참으로 조선의 령도자들은 인민이라는 하늘에 빛나는 위대한 태양이시다.》

△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며

조선의 현대력사, 사회주의조선의 현실은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며 그들을 승리에로 이끌어오신 인민사랑의 자랑찬 력사이며 빛나는 현실이다.

하늘로 떠받드는 인민을 위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며 한평생 세월의 눈비를 다 맞으시고 고생이란 고생은 다 겪으시며 자신의 한생을 깡그리 불태우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신의것이란 따로 없으시였다.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면서 인민을 위하시는 기쁨 그 하나만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락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평생 소중히 여기신 금고에 사랑하는 혁명동지

와 찍으신 한장의 사진만이 보관되여있었다는 가슴뜨거운 사실, 위대한 장군님께서 10 여년동안 단벌솜옷을 입으시고 고난과 시련을 앞장에서 헤쳐오신 눈물겨운 사실을 통해서도 이에 대하여 잘 알수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인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한 불철주야의 길을 쉬임없이 걷고 또 걸으신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처럼 한평생 인민들과 함께 계시면서 인민에게 가장 뜨겁고 진실한 사랑, 열정적이고 무한대한 사랑을 안겨준 그런 절세의 위인, 탁월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는 이 세상에 없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그처럼 숭고한 사상과 인민적령도풍모에 의하여 조선은 세상에 없는 인민의 나라로 위용떨치고있는것이다.

- 《인민들속으로 들어가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혁명원리를 신념으로 간직하시고 언제나 인민들속에 들어가 그들의 무궁무진한 힘과 창조적지혜를 발동하여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인민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풀어나가시였다.》

《인민들속으로 들어가라!》, 이것은 이민위천의 좌우명을 실천에 구현하기 위한 위대한 수령님의 한평생의 혁명방식을 총칭하는 불멸의 격언이며 수령님의 전생애를 관통하는 고귀한 정치적신조이다.

조선에는 회상실기집 《인민들속에서》가 있다. 이 회상실기집은 한생을 인민들속에 계시며 인민들과 뜻과 정을 나누시고 그들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인민적풍모

를 감동깊게 보여주는 도서이다.

조선인민은 물론 세계의 진보적인민들속에서 널리 읽히우고있는《인민들속에서》는 주체 51(1962)년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50돐을 맞으며 첫권이 출판된 때로부터 오늘까지 100여권이 출판발행되였다.

이 회상실기는 중국, 일본, 미국, 영국, 도이췰란드 등 여러 나라에 무려 수십만부나 보급되였으며 세계의 이름난 신문들과 잡지들도 그 책의 회상실기들을 수많이 편제하였다.

제목이 그대로 말해주는것처럼 도서는 한평생 인민들속에 계시며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인민적풍모를 전하는 절세의 위인실록이다.

새 조국건설로 들끓던 해방직후와 가렬한 전화의 나날, 전후복구건설시기를 비롯하여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였다. 때로는 인민군군인들속에, 때로는 로동계급과 농민들속에, 때로는 지식인들속에, 때로는 학생들과 어린이들속에 계시면서 온갖 뜨거운 사랑과 믿음을 다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님이시였다.

인류력사에 걸출한 명인들과 정치가들을 찬양하는 책들은 많지만《인민들속에서》와 같이 평범한 인민들이 자기 수령의 위대함을 하늘과 바다와 태양에 비기며 감격에 겨워 서술한 인류최대의 위인전, 불멸의 위인총서는 알지 못하고있다.

회상실기집 《인민들속에서》는 한평생 인민들속에 계시면서 인민과 더불어 이 땅우에 영광스러운 승리의 력사, 기적의 력사를 펼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만이 받으실수 있는 전인민적송가이다.

《인민들속으로 들어가라!》

인민을 스승으로, 하늘처럼 여기는 인민의 수령, 인민을 믿고 인민의 힘과 지혜를 발동하여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위대한 수령만이 이 구호를 철저히 구현해나갈수 있다.

슬기롭고 용감하며 정의와 진리를 사랑하고 정과 의리를 소중히 여

기는 조선민족의 위대한 태양으로 솟아오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활동의 첫 시작을 인민들속에 들어가는것으로부터 시작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망국민의 피눈물을 흘리는 인민들과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시며 인민들을 하나로 묶어세워 조국을 해방하시였으며 사대와 굴욕으로 수치만을 강요당하던 이 땅우에 자주로 존엄높은 인민의 나라를 세워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4살 어리신 나이에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장구한 기간 혁명과 건설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시여 불멸의 위대한 업적을 이룩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처럼 거대한 업적을 이룩하실수 있은 근본비결은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한평생 인민들속에 들어가시여 인민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시며 인민대중의 힘을 남김없이 발동하신데 있다.

주체 83(1994)년 4월 미국 CNN TV방송회사 기자단을 접견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신의 한생을 돌이켜보시며 인민들속에는 철학도 있고 경제학도 있으며 문학도 있다, 그래서 나는 늘 인민들속에 들어가 인민들에게서 배우고있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 교시는 인민대중이 체현하고있는 무한한 지성의 세계를 명백하게 집약화하신 뜻깊은 명언이다.

사실 인민대중이 파악하지 못할 그 어떤 사물현상, 사회현상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인민들속에 들어가는것은 시대와 혁명의 본질적요구가 담겨진 인민대중의 요구와 지향을 알수 있고 혁명과 건설의 수행방도에 관한 귀중하고도 창발적인 조언을 들을수 있는 유일한 계기이다.

한평생 인민을 찾아 현지지도의 길을 쉬임없이 이어가신분이 위대한 수령님이시였다.

하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상과 로선을 제시하시여도 이민위천의 사상으로 일관된 사상과 로선을 제시하시고 당과 국가를 건설하시여도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어머니당, 인민의 국가로 건설하실수 있었던것

이다.

여기에는 한없이 소박하고 청렴결백하며 뜨거운 인정으로 인민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위인상이 함축되여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우리 수령님은 적들앞에서는 백두산호랑이와도 같았지만 인민들앞에서는 더없이 친근하고 다정한 어버이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어린이와 이야기할 때에는 허물없는 친구가 되여주시였으며 다심한 어머니와도 같이 사람들의 속생각까지 다 헤아려주시였다. 로동자들을 만나면 그들의 기름묻은 손을 허물없이 잡아주시고 농촌에 가면 농민들과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시였으며 사람들을 만나 담화하실 때에는 롱담도 즐겨하시고 유모아와 생활적인 말씀도 자주 하시였다.

지금도 만경대갈림길에 서면 해방후 꿈결에도 그리시던 고향을 곁에 두고 강선의 로동계급을 찾아가신 위대한 수령님의 모습이 눈에 어려오고 무너진 벽체우에 앉으시여 폐허를 하루빨리 가시자고 절절히 호소하시던 수령님의 교시가 귀전에 울려온다.

그리고 농촌에 가면 위대한 수령님께서 농민들과 농사일을 의논하시며 허물없이 앉으시였던 수수한 멍석이, 어촌에 가면 어부들과 함께 만져보신 그물이 그리고 탄광에 가면 갱막장에까지 들어가시여 탄부들을 석탄증산에로 불러일으키시던 자취가 눈앞에 어려온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였기에 이 땅우에는 인민이 주인된 사회주의락원이 솟아올랐고 인민을 위한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수풀처럼 일떠서게 되였다.

인민사랑의 화원을 가꾸어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한 력사는 인민의 심장속에 영원히 지워질수 없는 뚜렷한 자욱으로 새겨졌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 83(1994)년 7월 6일에 하신 교시에서 자신께서는 지금까지 인민을 믿고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였으며 인민들속

에서 살아왔다고, 자신의 한생은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바쳐온 한생이였으며 인민들과 함께 투쟁해온 한생이였다고, 자신께서는 앞으로도 언제나 우리 인민들과 함께 있을것이라고 하시였다.

이 교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생애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고귀한 유훈으로 조선민족사와 세계혁명운동사에 영원히 기록되여있다.

《인민들속으로 들어가라!》, 이것은 인민들속에서 한생의 시작과 끝을 빛나게 장식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영원한 구호이며 기발이였다.

- 인민행렬차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날부터 조선혁명을 책임진 주인이 되겠다는 굳은 결심을 품으신 장군님께서는 한평생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사회주의조국을 수호하고 빛내이시였으며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조국과 인민을 위한 애국헌신의 길을 이어가시였습니다.》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생토록 인민을 위해 불같이 사시면서 인민의 행복을 위한 불철주야의 애국헌신의 길을 이어가시였다.

세계인민들은 다른 나라 지도자들과는 대비도 할수 없는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소식에 접하며 놀라움을 금치 못해하였다. 그러면서 위대한 장군님을 《**김일성**주석님과 마찬가지로 인민행렬차를 타고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는 령도자》, 《인민과 고락을 같이하는 인민적지도자》로 평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언제나 인민들속에 들어가시는것을 자신의 취미로, 락으로 여기고계시였다.

《취미속에 그 인간을 본다.》는 말이 있다.

주체 90(2001)년 7월 24일 로씨야 따쓰통신사가 제기한 질문에 대

답을 주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떤 취미를 가지고계시는가 하는 기자들의 호기심어린 물음에 자신께서 제일 좋아하는것은 인민들과 군인들속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것이라고 대답을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러시면서 인민들과 군인들이 어떻게 일하고 생활하는가를 알아도 보고 돌보아도 주며 그들과 어울려 이야기도 나누고 고락을 같이하는것이 자신의 가장 큰 보람으로, 락으로 되고있다고 교시하시였다.

정치의 력사가 수천년을 헤아리고 로동계급의 수령들, 지도자들의 정치활동력사만 하여도 한세기반을 헤아리지만 인민들속으로 들어가 그들과 같이 있는것을 생활과 활동의 고유한 방식으로, 취미로 체질화한 위인은 아마 세상에 없을것이다.

조선의 방방곡곡 그 어디에 가보아도 인민들과 군인들을 찾아 끊임없이 걷고걸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발자취가 깊이 새겨져있다. 공장과 농촌에는 물론 산세험한 최전연의 초소 그 어디에나 위대한 장군님께서 다녀가시고 인민들과 군인들을 만나주신 자취가 력력히 새겨져있다.

하기에 어느 한 문필가는 《그이의 이 발자취를 모두 이어놓으면 나라의 지도가 되고 력사가 된다.》고 하였던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인민대중을 떠난 당이나 수령은 있을수 없다.》**, **《지도자는 지혜도 령도력도 덕성도 인민대중속에서 체득하게 된다.》**고 하신 여기에는 위대한존재인 인민을 떠나서는 당과 같은 정치조직도 그 어떤 현명한 지도자도있을수 없다는 심오한 철리가 담겨져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방선초소에 찾아가시여서는 원쑤들의 총구가 도사리고있는 위험속에서도 병사들의 솜옷과 신발의 두터이도 헤아려주시고 얼굴이 튼 녀성군인들을 위해 크림도 보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공장, 기업소를 찾으시여서는 전기로앞에서 끓는 쇠물을 들여다보시며 용해공들의 생산성과를 고무해주시고 애어린 선반공들이 올리는 인사의 말씀도 고맙게 들어주시였다. 농촌에 가시여서

는 농민들과 무릎을 마주하시고 농사정형을 알아보시였고 가정을 찾으시여서는 쌀독도 열어보시고 땔감대책도 세워주시였으며 가정을 찾으시여서는 이제 태여나게 될 아이의 이름을 지어달라는 녀인의 무랍없는 청도 들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모든것을 자신의 더없는 기쁨으로, 락으로 간주하시였다.

철두철미 자신우에 인민을 놓으시고 혁명을 인민에 대한 사랑을 꽃피우는것으로 여기시고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가 온 한생에 불길처럼 타오른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은 자신을 바쳐 성스러운 인민의 태양이 되신 위대한 분이시며 장군님의 모습은 살아있는 인민의 정신, 고동치는 인민의 숨결, 나래치는 인민의 희망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강행군, 줴기밥, 야전솜옷…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얼마나 간고한 애국헌신의 길을 걸어오시였는가 하는것은 고난의 행군시기부터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입고계시던 단벌솜옷이 그대로 말해주고있다.

어느해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준엄한 시련의 고비들을 넘으시던 나날들을 감회깊이 더듬어보시다가 문득 자신께서 입고계시는 솜옷에 대하여 이야기하신적이 있었다. 그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솜옷을 수령님을 잃고 고난의 행군을 하면서부터 입었는데 준엄하였던 력사를 잊을수가 없어 아직까지 벗지 않고있다고, 이 솜옷은 선군혁명의 상징이라고 절절히 교시하시였다.

솜옷도 오래 입으면 얇아져 추위를 막아내지 못한다. 그러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얇아진 솜옷으로 스며드는 추위보다도 조국수호의 사명감으로 자신을 불태우시며 10 여년나마 그 한벌의 솜옷을 입으시고 강철의 의지와 초인간적인 정력으로 조국수호의 전초선들을 찾고 찾으시여 병사들을 한품에 안아 일당백의 용사들로 키우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사나운 눈보라를 헤치며 병사들을 찾아 넘고 오르신 철령과 오성산, 사나운 파도를 헤치며 찾으신 초도를 비롯한 조국수호의 전초선들은 선군장정의 길에 바치신 장군님의 애국헌신의 증견자로 남아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생신날, 명절날 언제 한번 편히 쉬지 않으시고 수수한 야전복차림으로 인민들을 찾으시였다.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나날에도 일군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건강이 념려되여 얼마동안만이라도 휴식하실것을 간절하게 말씀올렸으나 나는 아직 가야 할곳이 많다고, 내가 가야 온 나라에 승리의 불길이 타번지고 인민들이 잘살수 있게 된다고 하시면서 오히려 일군들에게 쓰러지지 않도록 건강을 잘 돌보라는 눈물겨운 말씀을 하시고는 불편하신 몸으로 또다시 현지지도의 길에 오르시였다.

력사는 달리는 야전렬차를 집무실로 삼으시고 오직 인민을 위해 초강도강행군길을 이어가시다가 순직하신 위대한 령도자를 기록하지 못하고있다.

쏘베트정권이 수립된 10월혁명이후 레닌을 만나러 간 미국기자는 《공산국가의 수령》이 싸늘한 난로가에 앉아서도 신심에 넘쳐 크레믈리를 지키고있었다고 하였고 파쑈도이췰란드침략군이 모스크바의 코앞에까지 침공해온 처절한 쏘도전쟁시기 수많은 정부기관들까지 다 소개되였지만 쓰딸린은 수도 모스크바의 크레믈리에서 떠나지 않고 전쟁을 승리에로 이끌었다고 한다.

대통령이나 국가수반들이 관저나 정부청사에서 집무를 보는것은 력대정치사의 전통적인 정치방식, 굳어질대로 굳어진 정치공리였다.

하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을 위해 수천년 정치사의 이 절대공리를 하늘로 날려보내시며 야전렬차강행군을 계속하시였다.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 현지지도의 길을 쉬임없이 이어가신 위대한 장군님과 같은 절세의 애국자, 인민의 령도자

는 그 어디에도 없다.

주체 84(1995)년 1 월 1 일 다박솔초소에 대한 현지지도로부터 생의 마지막시기까지 위대한 장군님께서 현지시찰하신 무력부문의 단위수는 2 490 여개에 달한다. 주체 87(1998)년 1 월 자강도의 근 20 개단위를 현지지도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6 000 여리 눈보라길에서 강계정신이 시대정신으로 빛나고 그것을 따라배우기 위한 투쟁속에서 성강의 봉화, 라남의 봉화가 타오르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평생 찾으신 단위는 1 만 4 290 여개에 달한다.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167 만 4 610 여리의 강행군길을 걷고 걸으시며 전대미문의 역경속에서 조국과 혁명, 사회주의를 수호하시고 강국건설의 새 력사를 펼쳐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걸으신 강행군길은 지구둘레를 근 17 바퀴나 돈 것과 맞먹는 거리이다.

참으로 위대한 장군님께서 걷고걸으신 수십성상의 한평생은 인민사랑, 인민헌신의 한평생이였다. 위대한 장군님은 인민을 위해 탄생하신분이시였다.

어느 한 외국인은 《조선, 위대한 인민강국》이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인민을 찾아가는 렬차에 계셨고 인민을 위한 길에서 순직하시였다.

조선인민은 위대한 수령들께서 사용하시던 렬차를 인민행렬차로 부르고있다. 인민을 위한 헌신적복무의 한생이 낳은 말이라고 본다.

다른 나라들에서는 인민행렬차라는 말은 물론이고 인민행이라는 말도 들을수 없다.

조선에서만 생겨날수 있고 들을수 있는 인민행렬차, 인민행이라는 말은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를 세워주시고 인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령도자의 위대한 생애에

대한 인민의 최대의 평가라고 나는 말하고싶다.》

언제나 인민들속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계시는것을 제일로 여겨오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야말로 진정한 인민의 령도자이시였으며 그래서 인민은 장군님을 더더욱 잊지 못해하며 절절히 그리는것이다.

- 끝없이 이어지는 인민을 위한 헌신의 나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은 이민위천의 한생으로 인민을 키우시고 조선을 빛내이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사상과 업적을 귀감으로 삼고 인민을 사랑하고 인민을 위하여 투쟁할것이며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실현해나갈것입니다.》

한평생 인민행렬차에 오르시여 인민을 찾고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사랑의 력사는 오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에 의하여 줄기차게 흐르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해나아가자는 열화와 같은 호소를 남기시며 인민을 위한 사랑의 길을 끝없이 이어가신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평생 아끼며 키워주신 인민, 온 생애를 깡그리 불태워 보살펴주신 조선인민이 사회주의사회에서 만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불면불휴의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고계신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조선인민의 지향과 요구를 출발점으로, 절대적기준으로 하여 새로운 로선과 정책들을 제시하시고 모든 일군들이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도록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주고계신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맡기고가신 조선인민의 행복한 삶을 지키기 위해

서라면 적들의 총구가 눈앞에 도사리고있는 판문각로대에도 오르시고 자그마한 목선에도 서슴없이 오르시여 군인들에게 힘과 용기를 안겨주신 분이 바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이시다.

인민들을 위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사랑은 철령과 오성산으로부터 서남전선의 최남단 최대열점지역에 이르는 전전선에 어리여있고 동해의 어촌마을에도 깃들어있으며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에도 어리여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몸소 오르시였던 27HP 밖에 안되는 자그마한 목선과 시험운행삭도, 시험비행기들은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시고 인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자신의 한몸을 서슴없이 내대시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숭고한 인민사랑을 전해주는 력사의 증견자들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눈보라치는 날이나 뙤약볕 내리쬐는 날이나 깊은 밤 이른 새벽 가림없이 농산, 축산, 수산, 경공업부문을 비롯하여 인민을 위한 현지지도의 길에 계신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만경대유희장을 찾으시여서는 일군들이 인민에 대한 복무정신을 똑바로 간직하도록 경종을 울리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8 월 25 일수산사업소와 평양남새과학연구소, 평양메기공장, 원산구두공장,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을 찾으시였을 때에는 인민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한 이곳 일군들이 대견스러워 그처럼 환히 웃으시였다. 그뿐아니라 큰물피해를 입은 조국땅 북변의 인민들을 찾아 머나먼 하늘길과 바다길, 령길을 달리시여 한없는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삼복철무더위에 옷자락을 땀으로 화락 적시며 온실을 찾으시고 농장길을 걸으시는분, 먼지가 일고 비물에 진창이 된 건설장도 서슴없이 걸으시며 란간이 없는 계단도 서슴없이 오르시는분, 물고기대풍에 그리고 만족해하시며 비린내가 나는 물고기도 서슴없이 쥐여보시며 희열을 느끼시는분, 인민들에게 안겨줄 재부를 한가지한가지 마련해놓았을 때가

제일 기쁘다고 하시며 순간의 휴식도 없이 크나큰 로고를 바치시는분, 그분이 바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이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인민들이 리용하게 될 문화정서생활거점들과 편의봉사기지들, 상점과 병원, 육아원과 애육원, 양로원 그리고 새로 지은 살림집들과 탁아소, 유치원, 청소년들을 위한 과외교양기지들을 찾으시여 남기신 인민사랑의 전설들을 다 이야기하자면 실로 끝이 없다.

진정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는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면서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것을 천품으로 타고나신분, 인민에 대한 헌신으로 이 땅우에 사회주의만복을 꽃피워가시는 인민의 태양이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분과 초가 다르게 전변되는 거창한 변혁들이 일어나고 황금해의 새 력사, 《이채어경》이 펼쳐졌으며 라선땅의 별천지가 펼쳐지고 함북도 북부지구에 희한한 사회주의선경거리, 선경마을들이 일떠섰다.

이 땅의 남녀로소모두를 혈연의 정으로 한품에 안아 값높은 삶과 영예를 안겨주시며 천만로고를 바치시여 인민의 꿈과 리상을 희한한 현실로 펼쳐나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는 정녕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

하기에 세계의 진보적인민들은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계시며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는 이 세상 그 어느 정치가도 펼칠수 없는 인민중시, 인민사랑의 정치로 인류의 마음을 끌어당기시는 위인이라는데 대하여 격조높이 칭송하고있는것이다.

지중해개발은행 리사장이며 이딸리아종합투자그룹 리사장은 자기의 격동된 심정을 다음과 같이 토로하였다. 《… **김정은**각하는 황홀함의 극치를 이루는 가장 인민적인 령도예술을 지니신 매혹적인 정치가이시라는 것이다. 각하의 국가정책작성의 절대적기준은 인민의 리상과 지향이며 시책실현의 드팀없는 원칙은 인민의 리익과 편리의 선차적보장이다.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서라면 순간의 휴식도 없이 위험천만한 최전연시찰길

에도 오르시고 건설장의 진창길도 걸으시는것이 그분의 체질화된 지도기풍이며 병사들을 위해 지휘관이 있고 대중을 위해 일군이 필요하다는것이 그분의 일관한 인민복무의 지침이다.》

에스빠냐에 본부를 둔 조선과의 친선협회는 인터네트홈페지에 다음과 같은 글을 실었다. 《세상에 국민을 위한다고 부르짖는 지도자들은 많지만 **김정은**원수님같으신 인민의 어버이는 그 어디에도 없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인민을 하늘로 여기신다. 그이의 하루하루는 인민의 아들로서의 헌신의 나날이였고 그이의 로고는 인민의 행복으로 이어진 하루하루였다. 수령은 <우리 인민>이라고, 인민은 <우리 원수님>이라고 부르며 사회주의대가정을 이룬 나라, 인민으로 시작되여 인민으로 일관된 나라가 바로 조선이다.》

브라질신문 《아구아 베르데》는 이렇게 서술하였다. 《**김정은**최고령도자는 훌륭한 품격과 자질을 갖춘 현시대의 가장 리상적인 국가지도자이시다. … 그이께서는 나라의 방방곡곡에 대한 현지지도로 날과 달을 보내시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일군들이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할것을 강조하신다. 조선인민은 그이를 국가지도자에 앞서 어버이로, 스승으로 따르고 있다.》

2. 인민을 모든것의 주인으로,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도록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되고 국가와 사회의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사회주의이며 우리 인민의 생명으로, 생활로 깊이 뿌리내린 불패의 사회주의이다.》

해당 사회제도의 우월성과 진보성은 정치, 경제, 사상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분야에서 사람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얼마나 원만히 보장해주고있는가 하는데 따라 규정된다.

조선의 사회주의제도는 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회주의제도이다.

인민의 나라 조선은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려는 인민대중의 념원을 산 현실로 활짝 꽃피워주고있다.

조선인민은 누구나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사회적인간의 본성적 요구에 맞는 정치생활, 경제생활, 사상문화생활을 누리고있다.

△ 값높은 정치생활

인민대중이 값높은 정치생활을 누린다고 할 때 그것은 그들이 정치의 주인이 되여 정치생활에 주인답게 참가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다시말하여 그것은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지니고 빛내이며 참다운 정치적권리와 자유를 가지고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면서 사는 생활이다.

조선에서는 인민들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있는 조선로동당이 인민대중에게 가장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안겨주고 그것을 끊임없이 빛내

여나가도록 이끌어주고있다.

또한 인민정권이 인민들에게 참다운 정치적권리와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주고 진정한 사회주의적민주주의를 실시함으로써 조선인민모두가 값높은 정치생활을 누리도록 하고있다.

－ 인민이 정치의 주인

인민이 정권의 주인으로 되여있는 조선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이 참다운 정치적권리와 자유를 가지고 국가정치생활에 주인답게 참가하고있다.

국가주권행사에 참가하는것은 사람들의 정치생활에서 기본을 이룬다. 국가의 모든 로선과 정책, 법령들은 국가주권기관들에서 토의결정되며 국가의 정치는 로선과 정책에 의하여 그 성격과 방향, 내용들이 규정된다. 인민대중은 모든 주권행사에 주인답게 참가하여야만 국가의 정책에 자기의 의사를 반영하고 국가의 정치가 자기자신의 리익을 옹호하는 정치로 되게 할수 있다.

인민대중이 주권행사에 참가하는 기본형식은 선거이다. 조선에서는 가장 인민적이며 우월하고 공정한 선거제도가 마련되여있음으로 하여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 각급 주권기관들이 모두 인민들에 의하여 직접 선거되며 인민의 진정한 대표들로 구성되고있다. 그리하여 인민대중은 주권기관을 통하여 자기의 주권을 충분히 행사하고있다.

조선에서는 17 살이상의 모든 공민들이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지, 재산 및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고있다. 선거나이를 17 살로 정한것만 보아도 조선의 선거제도가 공민들로 하여금 주권의 주인으로서 국가주권의 실현에 일찌기 참가하도록 하는 가장 우월한 민주주의적선거제도라는것을 알수 있다.

조선에서는 선거자들가운데서 그 누구에게도 특전과 특권이 부여되지 않으며 모든 공민들사이, 남성과 녀성, 일반 근로자들과 군인들사이

에 아무런 차별도 두지 않는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놓고 보더라도 여기에 추천된 대의원들은 모두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평범한 근로인민대중이며 선거자들은 자기들이 직접 선출한 대의원후보자들에게 100% 찬성투표하고있다.

주체 103(2014)년 4 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 13 기 대의원선거가 전체 조선인민의 드높은 정치적열의속에서 성과적으로 실시되였다.

조선인민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령도따라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빛나는 새 력사를 창조해나가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공화국공민으로서의 본분을 지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 한사람같이 참가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제 13 기 대의원선거에는 전체 선거자의 99.97%가 참가하여 해당 선거구들에 등록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들에게 찬성투표하였다.

선거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고 공화국정권의 강화발전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고있는 진정한 인민의 대표들이였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가운데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혁명투쟁에 참가한 항일혁명투사들과 조국해방전쟁로병들도 있었다.

또한 그들가운데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조국수호와 부강조국건설을 위한 전구마다에서 빛나는 위훈을 창조하고있는 군인이 17.2%였다. 그리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진군의 앞장에서 자랑찬 로력적성과를 이룩하고있는 공장, 기업소로동자가 12.7%, 협동농장원이 11.1%였으며 녀성은 16.3%였다. 또한 당과 정권기관, 행정경제기관, 근로단체, 과학, 교육, 보건, 문학예술, 출판보도부문 일군들을 비롯하여 여러 부문의 우수한 일군들이 있었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서 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고 공화국정권의 강화발전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여온 혁명선배들과 공로있는 일군들과 인민군군인들,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는 높은 과학기술을 소유하고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고있는 일군들과 로동자, 농민, 지식인들, 주체혁명의 대를 굳건히 이어갈 젊은 일군들로 배합되여 꾸려졌다는것을 알수 있다.

또한 모든 대의원들이 사회주의조선을 인민의 락원으로 일떠세우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그 어떤 과업도 훌륭히 수행할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준비된 일군들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우루과이신문 《라 후벤뚜드》가 《로동계급의 사회, 조선에서는 로동자들이 국가와 사회의 당당한 주인》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였다.

신문은 《로동계급의 세상》이라는 소제목의 글에서 《조선에서 로동계급은 국가와 사회의 당당한 주인으로 되고있다. 어렵고 힘든 부문의 로동자들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또는 도, 시, 군인민회의 대의원이 되여 국가정사와 관리에 참가하고있다. 2015 년 7 월에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 시, 군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서 **김정은**령도자께서 투표하신 대의원립후보자들도 련못무궤도전차사업소,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의 로동자들이였다.》라고 지적하였다.

조선의 선거제도의 인민적인 성격과 우월성은《만민복지》와《자유》,《평등》을 부르짖는 자본주의사회의 선거제도와 대비해볼 때 더 잘 나타난다.

자본주의사회에서 헌법상으로는 누구나 선거경쟁에 참가하여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될수 있는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있는것처럼 되여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각종 제한조치와 보류조건들을 설정함으로써 많은 근로인민대중이 선거에 참가할수 없게 하고 주권행사에는 오직 돈많은 특권층들만이 참가한다.

국가관리는 주권을 잡은 계급의 의사와 요구가 사회에 직접 실현되

게 하는 조직집행활동이다. 국가의 모든 로선과 정책, 법령과 결정지시들은 국가관리기관의 조직집행활동을 통하여 실생활에 구현된다.

주체 104(2015)년 2월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당중앙과 뜻과 운명을 같이하는 우리 일군들은 당의 인민관을 자기의 신조로, 넋으로 만들어야 하며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고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것을 사업과 생활의 철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조선에서는 인민을 위한것, 인민적인것이 가장 정의로운것으로 되고 있으며 최우선시되고있다.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는 로선과 정책의 옳고 그른것을 가르는 기준이다. 국가와 사회관리에서 주관주의를 피하고 우여곡절을 면하는 유일한 길은 인민대중속에 들어가 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듣는것이다. 이로부터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로선과 정책을 세우는데서 인민대중속에 들어가 그들의 의사와 요구를 듣는것을 첫 공정으로 삼아야 한다.

조선에서는 국가관리활동에서 언제나 근로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정책을 작성하며 그들의 의견을 널리 듣고 그들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정책을 집행하도록 보장하여주고있다.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는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의사와 요구를 집대성하고 체계화하면 사상이 되고 로선과 정책이 된다는 관점과 태도로부터 언제나 인민들속에 들어가 그들의 소박한 생각과 의사를 반영하여 나라의 정책을 세우고있다.

조선로동당을 진정한 어머니당으로 건설할데 대한 사상, 인민들의 요구수준에 맞게 생산물과 건설물의 질을 높일데 대한 사상, 새 세기 교육혁명을 적극 추진하여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다그칠데 대한 사상, 농산과 축산, 수산을 3대축으로 하여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할데 대한 방침을 비롯하여 모든 사상과 방침, 로선과 정책들은 다 인민을 위한것이다.

정치의 인민성은 정책에 인민의 의사를 반영할뿐아니라 그것을 인민의 리익에 맞게 집행하는데 있다.

인민의 의사와 요구를 존중하는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는 정책을 세우고 집행해나가면서 그것이 인민의 지향과 요구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 인민이 좋아하는가 좋아하지 않는가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집을 한채 짓고 거리를 하나 형성하며 신발 한켤레, 가방 한개를 생산하여도 인민들의 요구와 생활상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며 공장을 하나 건설하고 발전소를 하나 세워도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최대한으로 이바지할수 있게 하는것이 바로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정책이다.

그 어떤 지배와 억압도 받음이 없이 자기의 자주적요구에 맞게 진행하여나가는 생활, 항상 자기의 주인된 지위에 대하여 자각하며 행복을 제손으로 훌륭히 가꿔가는 생활, 이런 생활속에서 살고있는 조선인민에게는 자신의 인간적존엄이란 마치 늘 호흡하면서도 귀중함을 모르는 공기와 같이 범상하게 여겨지고있다.

조선에서 기본법전으로 되고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자주적인간의 권리와 의무, 공민의 권리와 의무를 가장 신성하게, 가장 철저하게 규제하고있는 자주적인간존중의 대법전이다.

조선에서 시행되고있는 모든 법들과 규범들은 조선의 사회주의사회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사회적존엄과 인격을 존중하고 그들의 가치를 최대한 높여주는 제도적규범들이며 법규들이다.

그리하여 세상사람들은 인민의 나라인 조선의 성격을 헌법 하나를 통하여서도 여실히 느끼며 조선의 사회주의제도를 《인민들의 권리와 리익이 법적으로 훌륭히 담보된 사회》라고 적극 찬양하고있는것이다.

조선로동당이 복잡하고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를 세우고 그것을 끊임없이 빛내여올수 있은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의사를 반영하여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인민대중의 리익에 맞게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였기때문이다.

- 가장 고귀한 정치적생명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에 있어서 인민들의 정치적생명과 물질문화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돌보아주는것은 한시도 소홀히 할수 없는 제일중대사로, 본분으로 되여왔습니다.》

사람의 정치생활에서 제일 중요한것은 값높은 정치적생명을 지니고 그것을 빛내이면서 사는것이다.

사람은 단순한 생물학적존재가 아니라 사회적존재이며 따라서 사람은 육체적생명만 가지고있는것이 아니라 사회정치적생명을 가지게 된다.

사람에게 있어서 육체적생명도 귀중하지만 정치적생명은 더 귀중하다. 정치적생명을 잃어버리면 목숨은 붙어있어도 사회적인간으로서는 죽은 몸이나 다름없다.

하기에 사람들은 남에게 예속되여 천대와 멸시속에서 살아가는것을 사람답게 살아가는것으로 보지 않았다. 또 사회를 위해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무위도식하는자들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다. 더우기 조국과 민족을 배반한자들에 대해서는 짐승만도 못한 놈이라고 저주하고있다.

조선속담에《범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다. 아마 이 말도 그래서 생겨난것이라고 볼수 있을것이다.

사람은 오직 사회정치적생명체의 한 성원으로서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유익한 일을 하면서 살아갈 때 사람답게 산다고 할수 있으며 정치적생명을 지니고있다고 말할수 있다.

정치적생명을 지니지 못하면 한생을 호의호식하며 산다고 해도 그것은 사회적인간의 참된 삶이 아니며 사람값에도 가지 못한다.

조선에서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당조직과 직맹조직, 농근맹조직과 청년동맹조직, 녀맹조직과 소년단조직들에서 정치조직생활을 하고있다.

조선에서 당과 그 령도를 받는 정치조직은 사람들의 정치적생명을 보호해주고있다.

조선인민은 정치조직생활을 그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치적생명을 고이 간직하고 더욱 빛내여나가기 위한 자신의 사활적인 요구로 내세우고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고있다. 조선인민에게 있어서 정치조직생활은 보편화된 일상생활로, 순간도 중단하지 않는 습관화된 생활로 되고있다.

조선에서 당조직과 근로단체조직안에서의 조직생활원칙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이다.

조선인민의 정치조직생활에서는 높고낮은 사람이 따로 없다. 모두가 다 동등한 권리를 행사하고 동등한 의무를 수행한다. 그리고 모든 사회성원들이 당조직과 근로단체조직을 통하여 자기의 의사와 요구를 자유롭게 충분히 제기하며 그들의 민주주의적요구와 의사가 당과 국가의 정책에 제때에 정확히 반영되고 그들의 창의창발성에 의하여 그것이 철저히 관철된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은 당조직과 근로단체조직에서의 조직사상생활과정에 수령의 혁명사상을 정치적량식으로 받아안고 조직과 동지들의 방조밑에 자신을 단련해나간다.

모든 사회성원들이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고귀한 사회정치적생명을 끊임없이 빛내여나가고있다.

당원으로부터 소년단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일정한 정치조직에 속하여 가장 높은 수준의 혁명적인 정치조직생활을 하고있는것은 조선인민이 누리고있는 영예이고 행복이며 조선의 사회주의의 참다운 우월성에 대한 뚜렷한 증시로 된다.

오늘 조선인민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안겨주신 정치적생명을 지닌것을 값높은 영예로 여기고있으며 당의 정치적신임에 충정으로 보답하는 여기에 자기의 정치

적생명을 빛내여나가는 참된 길이 있다는것을 깊이 명심하고 당과 혁명을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치고있다.

조선인민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받고있음으로 하여 가장 값높은 정치적생명을 지니고 끝없이 빛내여나가고있다.

한 시인은 시 《어머니》에서 격동된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

아, 나의 생명의 시작도 끝도
그품에만 있는 조선로동당이여
하늘가에 흩어지고 땅에 묻혔다가도
나는 다시 그대 품에 돌아올 그대의 아들!
그대 정겨운 시선, 살뜰한 손길에 몸을 맡기고
나는 영원히 아이적목소리로 부르고부르리라
어머니! 어머니없이 나는 못살아!

조선인민이 조선로동당을 어머니당이라고 부르며 당의 사랑을 어머니사랑에 비유해 말하는것도 결국 인민들에게 가장 값높은 정치적생명을 안겨주고 끝없이 빛내여주기때문이다.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나라마다 정당들도 있지만 전체 인민이 당을 어머니당으로 칭송하며 당창건기념일을 어머니생일로 경축하는것은 오직 인민의 나라인 조선에서만 볼수 있는 모습이다.

△ 참다운 경제생활

경제생활은 자연을 개조하여 사람들의 생활수단을 마련하고 그들의 물질생활조건을 보장하는 분야로서 사회생활에서 기초를 이룬다.

경제생활은 물질적부를 창조하는 로동생활과 사람들이 먹고 입고 쓰

고 사는 물질생활을 통하여 진행된다.

인민대중은 자연을 개조하기 위한 생산활동의 주인으로서 자기의 창조적로동으로 사회의 모든 재부를 직접 만들어낸다. 그런것만큼 인민대중은 마땅히 경제생활에서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고 모든 물질적재부의 향유자가 되여야 한다. 이것은 인민의 응당한 권리이다.

조선은 인민대중을 경제의 참다운 주인으로 내세우고 경제의 모든 분야가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나라이다.

조선에서는 인민적인 경제제도가 마련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누구나 능력과 소질에 따라 안정된 일자리를 가지고 먹고 입고 쓰고 살 조건을 국가와 사회로부터 보장받으며 고르롭고 행복하게 생활하고있다.

- 훌륭히 보장되는 로동생활조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생활에 직접 복무하는 부문들의 발전을 중시하고 근로자들에게 훌륭한 로동생활조건과 물질생활조건을 마련해주며 당과 국가의 인민적시책을 확대하여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향상시켜나가야 합니다.》

로동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수단인 물질문화적부를 창조하며 사람의 몸과 마음을 단련하고 세계에 대한 인식을 넓혀주어 그들을 세계를 개조하는 실천능력을 가진 힘있는 존재로 키운다.

이것은 로동생활이 인간생활의 중요한 부분의 하나이라는것을 말하여준다. 그런데 어느 사회에서나 사람들이 로동생활을 자유롭게 할수 있는것은 아니며 또 로동의 창조물인 물질적부를 근로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리용할수 있는것도 아니다.

생산수단이 사적소유로 되여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리윤추구를 위한 자본가들의 경쟁으로 생산의 《합리화》가 이루어지고 생산의 무정부성이 가져오는 불경기로 많은 기업이 파산되거나 생산이 감소됨으로써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기아와 빈궁에 시달리게 된다.

보람찬 로동생활은 오직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사회에서만 원만히 보장될수 있다.

조선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로동에 대한 권리를 철저히 보장해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안정된 일자리에서 보람찬 로동생활을 누리도록 하고있다.

근로자들이 생산수단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고있는 조선에서는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할것없이 모든 일터가 그들자신의것으로 되여있으며 인민대중은 자기의 일터에서 마음껏 일하고있다.

조선에서는 당과 국가가 인민생활에 대하여 완전히 책임지고 돌보고 있는데로부터 모든 근로자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는데 최대의 관심과 혜택이 돌려지고있다. 조선에서는 누구나 일할 나이가 되면 국가로부터 능력과 소질에 맞는 일자리를 빠짐없이 보장받고있다. 국가는 중등 또는 고등교육을 마치고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을 그들의 희망과 재능, 전공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하며 특히 녀성근로자들에게 그들의 체질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보장해주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조선인민은 오랜 기간 당과 국가의 세심한 보살핌속에서 안정된 일자리를 보장받으며 살아왔기때문에 실업자라는 말조차 모르고있다. 이것은 인민을 가장 귀중한 존재로 여기는 조선에서만 볼수 있는 일이다.

조선에서는 인민대중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고 그들에게 보다 문화위생적인 로동조건을 마련해주고있다.

로동조건과 로동보호사업을 끊임없이 개선하는것이 당과 국가의 중요한 시책으로 되여있는 조선에서는 근로자들에 대한 로동보호가 법적으로 확고히 담보되여있다. 근로자들이 일하는 모든 곳에 빈틈없는 로동안전보호시설과 훌륭한 문화위생조건이 갖추어져있다.

그리고 로동보호사업을 생산에 앞세우는것을 확고한 원칙으로 내세우고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로동안전보호시설과 산업위생조건을

끊임없이 개선완비하는데 커다란 국가적힘을 넣고있다.

특히 녀성근로자들의 로동조건보장에 각별한 관심과 여러가지 특혜가 베풀어지고있다. 녀성들이 일하는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마다에 국가부담으로 운영되는 탁아소, 유치원들을 설치하여주고 직장과 작업장들에 녀성들의 건강보호와 위생에 필요한 시설들을 훌륭히 갖추어주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주체 106(2017)년 1 월 김정숙평양제사공장에 새로 건설된 로동자합숙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주체 105(2016)년 6 월 김정숙평양제사공장을 현지지도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공장의 로동계급을 위한 합숙을 최상의 수준에서 지어주시겠다고 하시면서 부지를 몸소 정해주시고 형성안도 지도해주시였을뿐만아니라 인민군대의 강력한 건설력량을 파견하시였으며 공사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도 하나하나 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전투명령을 받아안고 현지에 달려나온 군인건설자들은 착공의 첫삽을 박은 때로부터 날에날마다 단숨에의 기상을 떨침으로써 반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연건축면적이 8 910 여㎡에 달하고 대중식사실, 생일식사실, 체육 및 오락실, 침실 등으로 이루어진 7 층짜리 로동자합숙을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기념비적건축물로 훌륭히 일떠세우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합숙을 바라보시며 정말 멋있고 특색있다고, 종합적인 편의봉사시설과 외랑으로 련결된 건물외벽에 로동자합숙이라는 글발을 큼직하게 붙이였는데 공장로동자들의 집이라는것이 잘 알린다고 말씀하시고 합숙의 여러곳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현관홀에 들어서시여 합숙의 특성에 맞게 홀의 공간을 잘 꾸렸으며 복도의 층고도 알맞춤하다고, 벽색갈도 아늑한감을 느낄수 있게 잘 선택하였다고 기뻐하시였다. 대중식사실, 생일식사실들이 정갈하며 장식품들과 주방에 갖추어놓은 설비들, 그릇가지들도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서 합숙생들이 입사하는 날 연회장같은 식

사실에서 잔치상을 크게 차려주자는 은정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합숙생들이 하루일을 마치고 즐거운 휴식을 할수 있게 꾸린 체육 및 오락실도 흠잡을데 없으며 그들의 생활상편의를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할수 있도록 꾸려진 침실들에 책꽂이, 옷장은 물론 경대까지 갖추어놓았는데 녀성들이 연지곤지로 단장하며 정말 좋아할것이라고 환하게 웃으시였다. 로동자합숙을 녀성들의 심리에 맞으면서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이 건설했다고, 가구설계도 잘되고 시공의 질도 대단히 높다고, 지열에 의한 난방보장체계를 구축해놓았는데 합숙생들이 한겨울에도 뜨뜻한 곳에서 생활할수 있게 되였다고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공장종업원들이 새로 건설된 합숙을 세상에 둘도 없는 로동자들의 궁전, 호텔이라고 한다는데 그들이 좋아한다니 자신께서도 기쁘다고, 로동자들을 위한 이런 희한한 건축물은 로동계급의 세상인 우리 나라에서만 일떠설수 있다고 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곳을 돌아보시였으면 얼마나 기뻐하시였겠는가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김정숙평양제사공장에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로동자합숙까지 일떠섬으로써 종업원들이 아무런 불편도 없이 일하며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향유할수 있게 되였다고, 일군들은 생산에 앞서 로동자들의 생활상애로가 무엇인가부터 알아보고 우선적으로 풀어주어야 한다고, 훌륭한 로동생활조건보장이자 높은 생산실적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참으로 김정숙평양제사공장구내에 로동당시대의 건축술을 과시하며 희한하게 건설된 로동자합숙은 우리 세상은 로동계급의 세상이라고 하시며 로동계급에게 보다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시기 위해 언제나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와 뜨거운 은정속에 솟아난 행복의 보금자리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주체 107(2018)년 6 월 신의주방직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이 공장 합숙생들이 당에서 김정숙평양방직공장과 김정숙평양제사공장에 마련해준 로동자합숙을 몹시 부러워하였다고 하는데 그에 못지 않게 훌륭한 합숙을 지어주겠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몸소 합숙터전을 잡아주시고 강력한 건설력량을 동원시킬데 대한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조선에서는 인민대중에게 휴식의 권리를 법적으로 선포하고 유급휴가제를 비롯한 여러가지 휴식형태들과 문화시설들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주고있다.

훌륭히 보장되는 로동생활조건속에 조선의 로동계급은 만리마의 고삐를 억세게 틀어잡고 힘차게 내달림으로써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다.

- 인민들의 유족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하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이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도 결국은 우리 인민들이 유족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게 하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인민대중의 값높고 행복한 생활에서 물질생활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인민대중은 국가와 사회의 주인인것만큼 마땅히 유족하고 행복한 물질생활을 누려야 한다.

조선에서 당과 국가는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제 1 차적인 과업으로,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내세우고 인민생활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지고 거기에 최대한의 혜택을 베풀어주고있다.

인민들의 물질생활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는가 안하는가 하는것

은 그들의 생활안정과 향상을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국가가 모든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세심한 관심을 돌리지 않는다면 경제력이 아무리 발전하여도 유족하고 행복한 물질생활이 이루어질수 없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국가는 근로자들의 생활을 전적으로 그들자신의 개인적인 일로 여기고 그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며 또 질수도 없다. 그것은 자본주의가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에 기초하고있는 반인민적인 착취사회라는것과 관련된다.

엄혹한 경제정세와 식량위기의 후과로 2009년에 세계적으로 기아의 위협에 직면한 인구수는 총 10억 2 000만명이라고 하였다. 과학기술과 문명이 급속히 발전하고있는 시대에 세계적으로 6명당 1명이 굶주리고 있다는 사실은 사람들로 하여금 믿기 어렵게 하였다.

겉이 아무리 현란하고 《만민복지》,《만민평등》에 대하여 요란스럽게 떠들어도 1%의 특권계층이 99%의 근로인민대중을 착취하고 인민들이 기아와 빈궁에 허덕이는 자본주의사회는 민중천시의 반인민적사회이다.

그러나 인민이 주인으로 되여있고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소유에 기초하고있는 조선에서는 국가정권이 인민들의 모든 생활을 책임지고 돌보아주게 되여있다.

국가는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가 되여 그들의 생활을 세심히 돌봄으로써 나라의 재부들을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려 그들의 생활을 계통적으로 끊임없이 높여나가고있다.

그리고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의 대표자, 창조적능력과 활동의 조직자로서의 사회주의국가정권이 인민생활을 틀어쥐고 통일적으로 조직함으로써 그들의 물질생활이 사람들의 자주적요구를 실현하며 창조적활동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하는 건전한 생활로 되게 하고있다.

조선에서 인민정권은 인민생활과 관련한 모든 분야를 다 포괄하며 가장 높은 수준에서 당과 국가의 인민적시책을 철저히 실현해나가고있다. 그리하여 조선인민의 평등한 물질생활을 확고히 보장해주고있으며

나라의 경제력이 강화발전하는데 따라 인민생활을 체계적으로 높여나가고있다.

조선에서는 우선 전체 인민에게 누구나 입고 먹고 쓰고 살수 있는 권리와 그에 필요한 온갖 조건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주고있다.

의식주문제는 인간생활의 필수적인 생활조건이며 물질생활의 기본내용을 이룬다. 사람이 입고 먹고 쓰고 살수 있는 권리와 조건을 보장받지 못하면 살아나갈수가 없다.

인민대중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사업의 직접적담당자이며 물질적부의 창조자인것만큼 응당 입고 먹고 쓰고 살수 있는 권리와 조건을 보장받아야 한다.

조선에서는 국가가 모든 사람들에게 식량을 공급해주고있다.

국가는 직업과 나이에 따라 그 누구에게나 충분한 식량을 정기적으로 공급해주며 휴가기간이나 병으로 일하지 못하는 기간에도 그대로 공급해주고있다. 장을 비롯한 기초식품들도 국가가 많은 몫을 부담하고 인민들에게 눅은 값으로 공급해주고있다. 이밖에도 힘든 부문에서 일하는 로동자들에게 로동보호물자로 여러가지 식료품과 영양제를 무상으로 공급해주고있으며 탁아소, 유치원 어린이들에게는 어린이용영양식료품을 공급해주고있다.

조선에서는 인민들의 살림집을 국가부담으로 건설하여주고있다.

평양시에 1990 년대초에 5 만세대의 살림집이 완공된데 이어 3 만세대의 살림집이 건설되였다. 1990 년대중엽~2000 년대중엽까지 도, 시, 군소재지들에 형성된 새로운 주택지구를 제외하고 농촌지역들에 건설된 새로운 농촌마을만 하여도 1 600 여개였다.

주체 90(2001)년 황해북도 서흥군 범안리에서 양어장과 발전소, 100 동의 농촌문화주택을 건설한데 이어 전국이 사회주의문화농촌건설에 떨쳐나 황해남도에서만도 1 만 6 000 세대의 살림집을 건설하여 112 개 마을을 새롭게 형성하였다. 주체 93(2004)년 한해동안에 건설된 살림집은

42 130여세대였다.

최근년간에는 수도의 살림집건설에 힘을 넣어 해마다 한개의 거리를 일떠세우고있다. 주체 101(2012)년에 창전거리, 주체 102(2013)년에 은하과학자거리, 주체 103(2014)년에 위성과학자주택지구, 주체 104(2015)년에 미래과학자거리, 주체 106(2017)년에 려명거리를 건설하였다.

국가적투자를 하여 일떠선 웅장화려한 거리들의 현대적인 살림집들에서 평범한 로동자, 지식인들이 돈 한푼 내지 않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있다.

현대건축형성의 본보기, 표준으로, 로동당시대의 선경으로 일떠선 려명거리는 조선인민이 위대한 수령님탄생 105돐에 드리는 가장 큰 로력적선물이였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려명거리에 건설된것과 같은 록색형, 에네르기절약형살림집 한채를 사자면 많은 돈이 들어야 한다고 한다.

외국인들은 21세기 에네르기절약형거리, 록색형거리인 려명거리살림집들을 돈 한푼 받지 않고 무상으로 교원, 연구사를 비롯한 평범한 사람들에게 배정해준 사실앞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조선에서는 또한 인민들에게 무료교육, 무상치료와 세금없는 생활을 보장해주고있다.

인민대중에게 유족하고 행복한 물질생활이 보장되게 하자면 낡은 사회의 유물인 온갖 세금제도를 철폐하여야 하며 착취사회가 인민들의 어깨우에 들씌운 교육, 보건부문에서의 무거운 부담을 없애고 무료교육과 무상치료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조선에서는 해방후 새 조국건설을 위한 사회경제개혁의 한 고리로서 일제의 식민지노예교육제도를 철폐하고 누구나 다 공부할수 있는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교육제도를 확립하였으며 나라의 경제토대가 튼튼하여지는데 따라 전반적무료의무교육제를 단계별로 실시하였다.

주체 45(1956)년에 전반적초등의무교육제를, 주체 47(1958)년에 전반

적중등의무교육제를, 주체 56(1967)년에 전반적 9 년제기술의무교육제를 실시하였고 주체 61(1972)년부터 전반적 11 년제의무교육제를 점차적으로 실시하기 시작하여 주체 64(1975)년에 완전히 실시하였다. 주체 101(2012)년부터 전반적 12 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할데 대한 법령을 채택하였다.

의무교육은 무료교육에 의하여 안받침되여야 하며 무료교육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 의무교육은 의무교육이라고 할수 없다. 조선에서는 주체 48(1959)년부터 나라의 모든 교육기관들에서 무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조선에서 청소년학생들은 전반적 12 년제의무교육단계에서뿐아니라 대학을 비롯한 고등교육단계에서도 완전한 무료교육을 받고있으며 대학생들은 장학금까지 받으면서 공부하고있다.

세상에는 의무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는 나라들이 없지 않다. 그러나 학령기의 모든 학생들뿐아니라 학령전아이들도 다 공부시킬뿐아니라 대학생들에게는 장학금까지 내주며 공부시키는 조선과 같은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다.

조선의 무료교육제도하에서는 국가가 인민들의 교육사업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지는 원칙에 기초하여 어린이로부터 늙은이에 이르기까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무료교육의 대상으로 하며 또한 학교전교육과 학교교육, 사회교육, 성인교육 등 모든 형태의 온갖 교육비용이 국가의 재정물질적부담으로 보장되고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돈 한푼 내지 않고 국가의 부담으로 마음껏 배우며 발전할수 있게 되였다.

웰남의 호지명주석은 위대한 수령님께 조선에서 무료교육을 실시하는데 대하여 부러움을 표시하면서도 자기 나라에서는 학생들에게서 수업료를 받지 않으면 수천만원의 적자가 나기때문에 할수 없다고 솔직한 심정을 말하였다.

조선의 전반적무상치료제는 도시나 농촌이나 차이없이 나라의 모든

지역에서 무상치료를 실시하며 로동자, 사무원뿐아니라 협동농민들을 비롯한 온 나라 전체 인민들에게 무상으로 치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조선에서 무상치료제는 조국해방전쟁이 한창이던 주체 42(1953)년 1월 1일부터 시작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조직령도하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어려운 시련의 시기인 주체 41(1952)년 1월 어느날 보건성의 한 일군을 부르시여 전체 인민들에게 무상치료제를 실시하자고 하시였다. 무상치료제에 얼마나 방대한 비용이 드는지 너무도 잘 알고있는 보건성의 일군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형편이 좀 곤난하지만 인민들의 생명을 적극 보호증진시키기 위하여 무상치료제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우리에게 있어서 인민들의 생명보다 더 귀중한것은 없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이에 따라 조선에서는 전쟁의 어려운 시기에 전반적무상치료제가 실시되게 되였다.

조선인민의 환희와 감격은 하늘땅에 넘쳐나고 충천한 기세는 원쑤들을 전률케 하였다.

세계는《미국은 줄폭탄으로 조선을 황페화시키고있지만 조선은 원자탄 10개와 맞먹는 <203호>대폭탄으로 미국의 면상을 후려갈겼다.》고 격찬하였다.

조선에서는 주체 49(1960)년에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2기 제7차회의에서 완전하고도 전반적인 무상치료제의 실시를 선포하였다. 그때부터 외진 두메산골과 어촌마을에 이르기까지 무상치료제의 혜택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단 한명도 없을뿐아니라 의사담당구역제에 따라 호담당의사들이 담당세대들에 대한 예방치료와 위생선전, 접종사업 등 의료봉사를 진행하고있다.

조선의 전반적무상치료제는 법적으로 튼튼히 담보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에는《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

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 많거나 병 또는 불구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들,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과 어린이들은 물질적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무상치료제, 계속 늘어나는 병원, 료양소를 비롯한 의료시설, 국가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제도의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규제되여있다.

조선은 이미 1970년대에 인구 1 000명당 의사수, 의료시설수, 침대수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앞선 나라들에 속하였다.

조선의 전반적무상치료제의 우월성은 모든 의료혜택을 완전하게 무상으로 보장하여주는데서 뚜렷이 표현되고있다. 조선에서는 진찰비, 실험검사비, 약값, 입원치료비 등 모든 진단치료비와 료양비, 료양소에 오고 가는 려비, 건강검진과 상담, 예방접종 등 예방을 위한 의료봉사비, 교정기구까지 다 무상으로 보장하여주고있다. 전반적무상치료제의 우월성은 또한 성별, 나이, 직업, 거주지역, 로동의 질과 량 등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의료혜택을 주고있는데서도 나타나고있다. 이와 함께 인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의료봉사를 마음껏 받을수 있는 실제적인 조건들을 훌륭히 보장해주고있는데서도 찾아볼수 있다.

이것은 오직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하에서만 있을수 있는 현실이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보건은 기업화, 상업화되여 돈벌이공간으로 되고있다. 뜻밖의 사고로 생명이 시시각각으로 위험에 처해있는 환자들도 돈이 없어 이 병원, 저 병원을 찾아헤매다가 끝내 숨지는것이 례사로운 일로 되고 치료비를 물지 못하면 앞못보는 늙은이환자도 임의의 순간에 외지에 내버려지는것이 오늘 자본주의사회의 현실이다.

세상사람들이 인류사회발전에서의 획기적인 사변으로 감탄하는 조선에서의 세금제도폐지를 놓고도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조선에 대하여 잘 알수 있다.

당과 국가에서는 조국해방전쟁의 어려운 시기에도 현물세를 면제하

거나 그 비률을 낮추는 여러가지 조치들을 취하였으며 주체 55(1966)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3기 제5차회의에서 농업현물세제를 완전히 페지할데 대한 법령을 채택하고 실현하였다.

주체 63(1974)년 2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전원회의에서 세금제도를 완전히 페지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주체 63(1974)년 3월 21일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앨데 대한 법령이 채택되였고 4월 1일부터 철저히 실행되게 되였다.

그리하여 조선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세금없는 나라로 되였다. 세금없는 나라는 세상에 오직 조선뿐이다.

돌이켜보면 조세제도, 세금제도는 국가발생과 함께 생겨났으며 수천년동안 지배계급의 통치기구를 유지하고 인민들을 략탈하는 수단으로 리용되여왔다. 세금은 오늘도 세계의 모든 나라들에서 국가재정수입의 기본원천으로 되고있다.

경제대국이라고 자처하는 어느 한 나라의 경우만 놓고보아도 국가예산수입의 80%이상을 세금으로 충당하고있으며 큰 세금종류만도 수십종이나 된다고 한다.

다른 나라들에서는 세금의 완전한 철페에 대해서는 꿈조차 꾸지 못하고있지만 조선에서는 40여년전에 벌써 세금제도가 완전히 페지되여 조선인민은 세금이라는 말조차 모르고 살아오고있다.

세금없는 나라, 이것이야말로 조선의 사회주의가 인민의 행복의 요람임을 뚜렷이 말해주는 위력한 현실적증거이다.

자본주의세계에서 경제발전과 국민소득의 《우위》를 떠드는 일본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수 없는 이 현실을 놓고 《마이니찌신붕》은 이렇게 전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님께서 이끄시는 주체의 나라 조선은 세계에서 세금이 없는 첫 나라로 되였다. 세금이 없는 나라의 출현, 이것은 계급사회와 더불어 수천년을 내려오면서 수억만 인민들을 수탈하여온 낡

은 조세제도의 종말을 선고하는 력사적사변이다.》

도이췰란드의 한 인사는《우리 나라에는 세금이 너무 많아 생활비를 가지고서는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 때가 많다. 최하층의 로동자들이 국가에 바치는 세금을 계산하면 생활비를 그대로 반환해도 모자란다. 그러나 귀국에서는 교육비, 치료비 등이 무상인 조건에서 세금까지 없으니 이것이야말로 살기 좋은 제도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 좋은 제도를 왜 세계에 공포하지 않는가.》라고 자기의 격동된 심정을 토로하였다.

조선에서는 근로자들이 일하는 과정에 로동능력을 완전히 잃었거나 년로하여 일을 못할 때 그들의 물질문화생활을 사회보장년금 및 보조금으로 보장해주고있다.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에서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희생을 무릅쓰고 용감하게 싸우다가 부상을 당하고 제대된 사람들과 인민군대에 복무하다가 부상을 당하고 제대된 사람들을 《영예군인》이라는 고귀한 칭호와 함께 내세우고 사회적으로 우대하도록 하는 인민적시책을 시종일관 실시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생전에 영예군인들과 함께 있는것이 제일 기쁘다고, 영예군인들은 피로써 조국을 지킨 나라의 귀중한 보배들이라고 하시며 주실수 있는 사랑을 다 안겨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영예군인들을 꽃방석에 앉히고 존대하여야 할 귀중한 혁명동지, 우리 당이 아끼고 사랑하는 핵심이고 공로자, 영예군인들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아까울것이 없다고 하시며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때에도 영예군인들의 생활조건을 우선적으로 관심하고 보장해주도록 뜨거운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조선에서처럼 부상당한 군인들을 영예군인으로 내세우고 우대하는 나라는 없다.

이처럼 조선에서 모든 근로자들은 인민적시책으로 물질생활분야에서 국가와 사회로부터 막대한 추가적혜택을 받고있다.

사실상 로동에 따라 받는 분배몫보다 추가적혜택이 더 크다고 할수

있다. 국가에서는 손해를 보면서도 인민들에게 많은 추가적혜택을 주고 있다.

언제인가 미국의 명망높다는 빌리 그라함목사가 평양을 방문한 후 기자들로부터 《목사님은 왜 조선에 성경책을 전하지 못했는가?》라는 특이한 질문을 받은적이 있었다. 그때 그는 거침없이 이렇게 말했다.

《성서는 인간을 사랑하라는 하느님의 뜻을 담고있다. 그런데 그 나라에서는 인간사랑이 국책으로 실시되고있다. 무상치료, 무료교육, 의식주에 대한 국가적책임, 이것이 인간을 하늘같이 여기시는 **김일성**주석께서 내놓으시고 실천하시는 국책이다.

조선인민들은 그분을 하느님처럼 받들고있었다. 이러한 나라에 성경책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조선은 예수가 와도 할 일이 없는 인간천국이라는것이다.

그리스도교계 보수파의 왕, 세계종교계의 거두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가 한 진실의 고백은 그대로 언론에 공개되여 온 미국땅을 의문부호로 만들어놓았다. 세상에 그런 나라도 있는가 하는것이였다.

이런 의문이 생긴것은 당연하다. 세계의 수많은 지역과 나라들에서 당국의 그릇된 시책을 반대하는 시위와 파업이 그칠새없이 일어나고있으며 극심해지는 정치적분쟁이 동족간의 무장충돌로까지 이어져 수많은 사람들이 떼지어 정든 고향을 떠나고있다. 먹고 입고 쓰고 살 초보적인 생존권마저 짓밟히우는 이런 약육강식의 사회에서는 예수가 할 일이 많겠지만 조선에서야 할 일이 없으며 또 성경책이 필요없는것이다.

모든것이 풍족해서가 아니다. 인민을 위해 당하는 국가의 손실은 손실이 아니며 인민을 위해 더 많은것이 지출될수록 더 큰 기쁨을 느끼며 인민의 밝은 모습에서 큰 만족을 느낀다는것이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는 조선로동당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이며 공화국정부의 시책이다.

인민적시책이 구현되는 과정을 통하여 조선의 사회주의의 우월성이 뚜렷이 과시되고있으며 인민의 나라,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가 더

욱더 공고발전되고있다.

△ 건전하고 풍만한 사상문화생활

사상문화생활은 사람들의 사상정신적, 문화정서적요구를 실현해나가는 생활이다. 사람들은 사상문화생활을 통하여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을 키우고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를 갖추게 되며 다양한 문화정서적요구를 실현하게 된다.

이것은 사상문화생활을 통하여서만 사람들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키우며 문화정서생활의 창조자, 향유자로 살며 발전해나갈수 있다는것을 말해준다.

조선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당과 국가의 옳바른 사상문화생활제도하에서 인류력사가 지금까지 알지 못하고있는 높은 수준에서 고상한 사상문화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다.

- 사상사업을 언제나 첫째가는 중대사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우리 나라는 온 사회가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일색화되고 천만군민이 투철한 혁명보위정신과 견결한 사회주의수호정신을 지니고 김일성민족의 위대한 정신력으로 거창한 변혁의 력사를 창조해나가는 불패의 사상강국으로 위력떨치고있습니다.》

사람의 품격과 가치는 사상의식에 의하여 규정되며 사상의식은 사람의 모든 활동에서 결정적역할을 한다.

인민들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지녀야 할 사상의식은 자주적인 사상의식이다. 자주적인 사상의식은 자주적인 사회적존재로서의 사람의 본성적요구를 반영한 사상의식으로서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의 자각이

며 자기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나가려는 의지이다.

자주적인 사상의식으로 무장한 사람만이 혁명과 건설에 주인답게 참가할수 있으며 자연과 사회를 자기의 요구에 맞게 성과적으로 개조해나갈수 있다. 또한 온갖 부르죠아반동사상과 기회주의사상을 견결히 반대하고 혁명적원칙과 로동계급적립장을 튼튼히 고수할수 있다.

이런것으로 하여 인민에 대한 최대의 사랑은 인민을 자주의식으로 무장시키고 사상적으로 각성시키는것이며 인민에 대한 최대의 죄악은 인민의 자주의식을 마비시키고 사상적으로 타락시키는것이다.

오늘 조선인민은 강국건설을 다그쳐나가는 총공격전의 시기, 혁명적대고조의 시기에 살고있다.

시대와 혁명은 모든 사람들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밖에는 그 누구도 모른다는 투철한 립장을 간직하고 자기의 힘으로 조선혁명을 전진시켜나가는 주체형의 혁명가들로 준비시킬것을 요구하고있다.

조선에서는 사상혁명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사회성원들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자주의식이 강한 주체형의 혁명가로 키우기 위한 사상사업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인민대중을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투쟁은 조선로동당이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던 첫 시기부터 꾸준히 벌어졌으며 날이 감에 따라 더욱 정력적으로 진행되고있다.

최근 조선에서는 위대성교양, **김정일**애국주의교양, 신념교양, 반제계급교양, 도덕교양에 힘을 넣고있다.

5대교양은 사람들로 하여금 누구나 자기의 심장에서 우러나오는 깨끗한 충실성으로 가식과 변심이 없이 오직 수령만을 생각하고 높이 받들어모시며 수령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워나갈수 있게 한다.

또한 조국과 인민에 대한 뜨겁고 열렬한 사랑을 지니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가장 적극적이고 희생적인 헌신성을 발휘하며 당의 현명한 령도가 있는 한 승리는 확정적이라는 억척같은 신념과

의지를 지니고 사소한 동요나 주저도 없이 자주의 길, 사회주의길을 따라 변함없이 걸어나갈수 있게 한다.

이와 함께 혁명의 원쑤들의 반동적본질을 똑똑히 알고 혁명적원칙, 계급적원칙을 철저히 고수할수 있게 하며 혁명대오의 정치사상적통일과 단결을 더욱 강화하고 온 사회에 건전하고 혁명적인 생활기풍을 확립할수 있게 한다.

사상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리였기에 오늘 조선에서는 전체 인민이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가고있다.

높은 자주의식과 집단주의정신으로 무장한 조선인민은 혁명하는 인민으로서의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지니고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 모든 힘과 지혜를 다 바쳐가고있다. 조선인민들속에서는 누가 보건 말건 오로지 당과 혁명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는 공로자들의 대렬이 날로 늘어나고있으며 그들을 따라배우는 운동이 전사회적으로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이것은 조선인민의 사상정신적풍모가 얼마나 높은 경지에 이르고있는가를 잘 보여주고있다.

당과 인민이 일심단결되여있고 온 사회가 화목한 혁명적대가정을 이루고 서로 돕고 이끌면서 당과 혁명,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는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고있는 이것이 바로 조선의 사회주의의 참다운 사상생활모습이다. 여기에 조선의 사회주의의 공고성과 불패성의 원천이 있고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완성을 위한 확고한 담보가 있다.

자기가 선택한 주체의 길, 사회주의길로 꿋꿋이 전진하고있는 조선인민의 강한 사상정신은 세계인민들의 한결같은 경탄을 불러일으키고있다.

— 사회주의문명건설을 다그치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주의문명건설을 다그쳐야 하겠습니다.》

당과 국가가 인민들의 문화생활조건을 책임지고 보장하여주는 제도는 인민대중의 요구와 지향에 맞는 우월한 제도이며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는것은 조선식 사회주의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이다.

흐르는 세월과 더불어 사람들의 기억은 희미해지기마련이다. 그러나 흐르는 세월과 더불어 조선인민이 잊지 못하며 즐겨 부르는 노래, 세대와 세대를 이어 더 높이 울려퍼지는 노래가 있다.

《세상에 부럼없어라!》

바로 이 노래에 미래를 위하는 조선로동당의 정치가 비껴있고 날로 승승장구하는 사회주의조선의 전진의 원천이 있다.

교육의 발전수준이자 인간의 문명수준이고 해당 나라의 국력과 발전의 높이이며 그것은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담보한다.

돌이켜보면 조선혁명은 후대들을 위한 혁명이라고도 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후대교육과 민족간부양성사업을 민족의 장래운명을 좌우하는 관건적문제로 보시고 진정한 인민적교육제도를 세우기 위하여 끊임없는 로고를 바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30년대초에 벌써 시범적으로 고유수에 삼광학교를 세우시고 청년들을 무료로 공부시키면서 사회주의적교육을 실시하여 많은 청년들을 혁명가로 키워내신 경험을 쌓으신데 기초하여 항일혁명투쟁시기 **《조국광복회 10대강령》**에서 인민적인 교육제도를 수립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35(1946)년 2월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제1차회의의정으로 연필문제를 상정시키시였으며 교육을 모든 사업에 앞세우고 전체 인민이 교육사업발전을 위해 떨쳐나서도록 이끌어주시였다.

가렬처절한 전쟁의 나날 최고사령부의 한지붕아래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품에 안겨 아이들이 자랐다. 우리가 후대들을 위해 바치는 노력은 수십

년후 후대들이 우리를 보는 눈빛을 결정하게 될것이라고, 우리가 후대들에게 많은 사랑을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래일의 조국은 더 부강해지고 더 문명해지고 더 아름다와질것이라고 하시며 자신께서 저축하시였던 생활비도 학교건설에 깡그리 바치신분이 바로 위대한 수령님이시였다.

아이들은 나라의 왕이라는 명언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시였다. 지덕체라는 유명한 말도 위대한 수령님의 후대들에 대한 사랑의 력사속에 더욱 빛을 뿌리였다.

조선에서는 주체 101(2012)년 9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회의에서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할데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을 발포하였다.

전반적 12 년제의무교육의 실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숭고한 조국관, 후대관, 미래관이 집약되여있는 중대한 조치였다.

전반적 12 년제의무교육제는 전반적 11 년제의무교육제의 심화발전이며 중등일반교육체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이다.

전반적 12 년제의무교육은 1 년동안의 학교전교육과 5 년제소학교, 3년제초급중학교와 3년제고급중학교에 이르는 12년동안의 체계적인 교육기간에 일반기초지식과 현대적인 기초기술지식을 배워주어 새세대들에 대한 중등일반교육을 완성시켜주는 의무교육이다.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은 지식경제시대 교육발전의 현실적요구와 세계적추이에 맞게 교육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 새세대들을 완성된 중등일반지식과 현대적인 기초기술지식, 창조적능력을 소유한 주체형의 혁명인재로 키우는 교육이다.

영국조선친선협회는 성명을 발표하여 이 세상에서 전반적 12 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나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뿐이라고 하면서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긴축정책과 공공부문 예산삭감에 매달리고있지만 조선에서는 교육부문에 대한 국가적투자를 확대하고있다. 전반적 12 년제의무교육의 실시는 조선의 어린이들에게 자기의 재능을 더욱 활짝 꽃피울

수 있는 보다 훌륭한 조건을 마련해줄것이다. 이렇듯 대담하고 혁신적인 조치는 인민의 지도자로서의 품격과 자질을 완벽하게 지니신 존경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를 받는 조선에서만 취해질수 있다.》라고 언급하였다.

과학기술지식의 년평균장성률이 10%계선을 훨씬 넘어선 현시기 교육기간을 1 년만 늘여도 나라의 경제장성률이 비할바없이 늘어난다는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의 분석자료에 비추어볼 때 전반적 12 년제의무교육제의 실시로 조선의 사회주의제도가 얼마나 더 강대해질것인가 하는것은 누구나 가늠하기 어렵지 않을것이다.

조선에서는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높은 목표밑에 우월한 교육체계인 일하면서 배우는 고등교육체계를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더욱 발전시켜 인재강국화를 실현하는데서 한몫해나가도록 하고있다.

전민과학기술인재화는 말그대로 전체 인민을 높은 과학기술지식과 창조적능력을 소유한 인재로 만든다는것이다. 전민과학기술인재화, 이것은 어느 나라에서나 내세울수 있는 구호가 아니다.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인재양성에 힘을 넣고있지만 그것은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의 범위에까지 미치지 못하고있으며 더우기 모든 사람들을 현대과학기술로 무장시키는 문제에 대하여서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전민과학기술인재화는 오로지 인민대중제일주의의 리념을 구현하여 이 땅우에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려는 조선로동당만이 내세울수 있는 투쟁구호이다.

주체 105(2016)년 1 월 1 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모시고 과학기술전당준공식이 성대히 진행되였다.

과학의 세계를 상징하는 거대한 원자구조모양을 이룬 독특한 형식의 과학기술전당은 크게 종합적인 전자도서관과 실내과학기술전시장, 야외과학기술전시장으로 나뉘여져있다. 다기능화된 현대과학기술보급기지, 정보교류의 거점인 과학기술전당은 전국의 모든 과학연구부문, 교육기관, 공장, 기업소들은 물론 가정들에도 국내콤퓨터망으로 실시간 편리한

봉사를 진행할수 있게 그리고 필요한 과학기술자료들을 서로 교환할수 있게 훌륭히 꾸려져있다.

과학기술전당은 과학기술발전을 강국건설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대사로, 나라의 전도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여기고 과학기술발전을 일관하게 밀고나가는 조선로동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힘있게 과시하고있다.

전민학습의 대전당인 과학기술전당을 찾는 조선인민은 누구나 마음껏 지식의 탑을 쌓으며 과학의 힘으로 세계를 압도할 꿈을 키우고 과학과 기술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을 굳건히 떠받들어나가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에는 국가가 전반적무상치료제를 더욱 공고발전시키며 예방의학적방침을 관철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내용이 명기되여있다.

조선에서는 전반적무상치료제를 성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병원과 진료소 등 의료봉사시설을 늘이고 보건일군들을 수많이 양성하며 의약품과 의료기구를 원만히 보장하고 의학과학기술을 발전시켜 의료봉사의 질적수준을 높여나가도록 하고있다.

특히 정성을 사회주의보건의 속성, 생명으로 규정하고 의사들이 뜨거운 인간애를 지니고 환자치료에 정성을 다하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사회주의의학은 본질에 있어서 예방의학이며 병을 미리 막고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증진시키는것은 조선의 사회주의의학의 기본임무이다.

조선에서는 예방의학적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전초기지이며 위생방역사업을 직접 조직집행하는 담당자인 위생방역기관들을 튼튼히 꾸리고 그 역할을 높여 사람들속에서 위생지식과 위생상식을 넓혀주기 위한 위생선전사업을 강화하고 도시와 농촌을 위생문화적으로 꾸리는 사업에서 결정적전환을 가져왔다.

또한 전염성질병이 생기지 않도록 검진과 예방접종을 정기적으로 진

행하여 여러가지 전염병과 질병들의 근원을 없애고 질병들에 대한 예방치료대책들이 철저히 세워져 사람들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고있다.

국가에서는 장내성전염병에 대한 예방치료를 잘하고 전염성질병에 대한 예방치료를 강화하는데 큰 힘을 넣고있다. 특히 녀성들과 어린이들이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철저히 세우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이와 함께 고려의학을 장려하고 고려약생산을 늘이도록 하고있으며 발병의 원인으로 되는 공해를 방지하는데도 큰 힘을 넣고있다.

뿐만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체력을 튼튼히 단련하도록 대중체육과 운동을 적극 장려하고있으며 새로 출품되는 좋은 항생제들을 예방치료사업에 받아들이게 하는 등 예방치료를 위하여 아낌없는 배려를 돌려주고있다.

그리하여 세계적으로 《에이즈》, 《조류독감》, 《지카비루스》등 새로운 전염병들이 만연되여 사람들이 생명을 잃거나 병마에 신음하는 가운데서도 조선에서는 이러한 전염병을 모르고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여 일하며 생활하고있다.

최근에는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 옥류아동병원, 류경치과병원, 류경안과종합병원 등이 일떠서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있다.

2015년 9월에 진행된 유엔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현세대뿐아니라 후대들의 유족한 생활을 담보하는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지속개발목표들을 채택하였다. 빈궁청산을 비롯하여 17가지의 기본목표들을 설정하고 매 기본목표아래 세부목표들을 구체적으로 밝히였다.

여기에서 보건부문은 3번째 기본목표에 속해있다. 이에 따라 2016년 9월에 있은 세계보건기구 동남아시아지역총회 제69차회의에서는 그 전해에 채택된 지속개발목표에 대한 리행과 보건사업에서 지역내 성원국들이 이룩한 일련의 성과를 비롯하여 세계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이 총회에서는 보건부문 지속개발목표리행에 관한 보고서가 발표되

였는데 조선이 지역적으로 제일 앞선 나라로 평가되였다.

세계적으로 지속개발목표달성에서 난문제로 나서고있는것이 바로 전민건강봉사체계의 확립과 말단단위에서의 보건일군수가 적은것이라고 한다.

그로 하여 세계 많은 나라들의 보건부문 전문가들이 골머리를 앓고있으며 어떤 사람들은 완전하고도 평등한 건강봉사를 할수 있는 사회는 현재까지 실현할수 없는 리상사회라고 생각하고있다.

2016년 세계보건기구 동남아시아지역사무소에서는 조선의 사회주의 보건제도의 우월성과 생활력에 대한 공감과 지지성원의 뚜렷한 표시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보건성에 보건부문 우수상을 수여하였다.

2017년에 있은 세계보건기구총회 제70차회의 전원회의에서 조선의 인민보건제도에 대하여 알게 된 참가자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그처럼 어려운 속에서도 조선에서 녀성들과 어린이들의 건강증진과 영양관리에 특별한 관심을 돌리고있으며 그들이 국가적인 건강보호혜택을 정상적으로 받고있는것은 참으로 세계에 자랑할만 한 일이다. 인민을 위해서는 천만금도 아끼지 않으시는 **김정은**령도자의 인민중시, 인민사랑에 떠받들려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인민의 병원들이 문수지구에 일떠섰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국가가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선차적인 힘을 돌리고있다는것을 느끼였다.

벨지끄 《조선은 하나다》위원회 서기장은 《평양산원은 세계의 모든 나라들에 있어서 귀감으로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실력과 정성을 겸비한 사람들이 환자들에게 무료로 높은 수준에서 치료를 해주고있기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인민에 대한 **김정일**령도자와 조선로동당의 각별한 배려를 보여줍니다.》라고 말하였다.

도이췰란드 한 회사의 책임기사는 《귀국의 인민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다. 조선이 부럽다.》라고 하였으며 중국신화통신사 평양분사의 한 성원은 《여기서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 인민에 대한 사랑, 후대에 대한 중시를 감명깊게 료해하고 조선인민의 앞날이 더 좋고 행복하기를

축원합니다.》라고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였다.

조선에서는 문학과 예술을 비롯한 모든 문화사업을 대중화, 생활화해나가고있다.

문학예술활동을 대중화한다는것은 로동자, 농민들을 비롯한 광범한 군중을 문학예술활동과 창작에 널리 참가시키며 문학예술을 근로자들에게 널리 보급함으로써 인민대중이 문학예술의 진정한 주인으로 되게 하며 문학예술을 마음껏 즐길수 있도록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문학예술활동을 대중화, 생활화하기 위하여 군중문화사업을 발전시키는데 커다란 힘을 넣고있다. 로동자, 농민, 사무원, 학생들속에서 예술소조활동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문학예술의 전성기가 펼쳐지고있다.

사회주의문화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는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체육의 대중화, 생활화는 조선로동당 체육정책의 기본을 이루며 전체 인민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튼튼히 단련된 사회주의건설자로 준비시키는 중요한 사업이다.

조선에서는 학교체육을 발전시키며 모범체육군창조운동을 힘있게 벌려 모든 근로자들을 로동과 국방에 믿음직하게 준비시키고있다.

21 세기 새로운 문명개화기가 펼쳐지고있는 조선에서는 최근시기 전체 인민이 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문화정서생활기지들이 해마다 수많이 일떠서고있다.

릉라인민유원지, 류경원과 인민야외빙상장, 통일거리운동쎈터, 마식령스키장, 미림승마구락부, 문수물놀이장...

인민의 행복에 겨운 웃음소리 넘쳐흐르는 문수물놀이장 하나만 놓고보아도 거기에는 인민의 문화휴식터를 일떠세우시기 위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기울이신 심혈과 로고가 뜨겁게 깃들어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문수물놀이장의 형성안을 무려 113 건이나 보아주시였다.

113건의 물놀이장형성안.

한밤중에도 이른새벽에도, 휴식일에도 명절날에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문수물놀이장의 형성안을 지도해주시였다. 설계일군들이 아무리 사색을 모으고 성의를 다했어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형성안에 만족이 없으시였고 번마다 새로운 착상을 더 넣어주군 하시였다.

때없이 건설장에 찾아오시여 장시간에 걸쳐 돌아보시고는 또 형성안을 다시 작성하도록 하군 하시였다. 인민이 리용하게 될 건물에 하나라도 더 좋은것을 마련해주시려는 친어버이심정에서였다.

이렇게 지도하여주신 형성안만 해도 113건이였으니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문수물놀이장에 바치신 심혈과 로고의 세계를 다 계산할수 없는것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체육문화시설들이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갖추어져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그리하여 오늘 조선인민은 명절날이나 쉬는날, 퇴근후의 생활을 문화정서적으로 다양하게 하여 온 사회에 화목하고 생기발랄한 분위기를 세우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문명건설이 힘있게 다그쳐짐으로써 머지않아 이 땅우에 조선인민의 꿈과 리상이 이루어질 천하제일강국, 인민의 락원이 보란듯이 일떠서게 될것이다.

△ 위대한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 당

오늘도 세계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주체 104(2015)년 10월 10일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 군중시위에서 하신 인민사랑의 연설을 잊지 않고있다.

바로 이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대중에 대한 멸사복무는 조선로동당의 존재방식이며 불패의 힘의 원천이다.》**라는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연설을 마치시면서 **《우리모두 위대한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해 나아갑시다!》**라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어찌하여 인민에 대한 《복무》라는 말앞에 《멸사》라는 말을 쪼아박아주시였는지 다시한번 돌이켜보게 된다.

여기에는 인민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로 보고 인민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말고 하늘에서 별이라도 따와야 하며 모든것을 인민을 위한 일에 복종시켜야 한다는 숭고한 뜻이 담겨져있다.

멸사복무라는 이 말은 인민의 나라인 조선의 사회주의의 본질적특성과 우월성을 집약적으로 보여주고있다.

바다물이 짜다는것은 한모금을 통해서 알수 있다는 말이 있다. 멸사복무라는 이 한마디의 말을 통해서 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을뿐아니라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조선의 사회주의에 대하여, 그 불패성에 대하여 잘 알수 있다.

- 조선로동당의 존재방식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는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제일주의이며 우리 당의 존재방식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것입니다.》

조선로동당의 존재방식은 위대한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것이다.

조선로동당은 력사상 처음으로 인민중시, 인민사랑의 정치를 펼치고 한평생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고귀한 뜻을 받들어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성스러운 력사를 수놓아가고있다.

조선로동당은 당을 진심으로 받드는 인민의 마음을 제일재부로 소중히 간직하고 용감하고 슬기롭고 아름다운 인민을 위하여 만짐을 지고 가시밭도 헤치며 미래의 휘황한 모든것을 앞당겨오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고있다.

조선이 복잡다단한 세계정치속에서도 추호도 흔들림없이 승승장구하여올수 있은것은 바로 조선로동당이 인민대중에 대한 멸사복무를 자기의 존재방식으로 내세우고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여온데 있다.

조선로동당의 력사는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고 인민의 리상과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온 자랑스러운 행로이다.

조선로동당의 정치는 가장 숭고한 인민중시의 정치이다.

조선로동당은 자기의 붉은 기폭에 마치와 낫과 붓을 아로새긴 때로부터 한시도 인민과 떨어져본적이 없으며 언제나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들며 혁명을 전진시켜왔다.

인민을 나라의 주인, 정치의 주인으로 내세우고 인민의 소박한 의사와 요구를 로선과 정책에 담으며 인민의 힘을 믿고 인민에게 철저히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여기에 조선로동당의 정치의 인민적성격이 있다.

인민이 있어 당이 있고 인민을 위하여 국가도 군대도 존재하며 혁명과 건설도 인민의 꿈과 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해야 한다는것이 조선로동당의 확고한 신념이고 의지이다.

평양시 중심부 **김일성**광장에 가보게 되면 중심에 인민들이 공부하는 인민대학습당이 자리잡고 그옆에 내각청사가 있는것을 볼수 있다. 수도의 중심은 곧 나라의 중심이다.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나 수도의 중심에는 자기 나라를 상징할수 있는 국가기관을 앉히는것이 관례로 되여있다. 수도의 중심에 일떠선 인민대학습당이야말로 인민이 모든것의 주인이고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회주의조선, 인민의 나라의 영원한 상징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오늘 조선에서는 나라의 고귀하고 아름다운 모든것이 인민이라는 성스러운 이름과 결부되여 불리우면서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실현에 적극 복무하고있다.

국호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고 정권도 《인민정권》, 군대도 《인민군대》이며 인민들이 창조해낸 가장 훌륭하고 화려한 궁전과 극장도 《인민문화궁전》, 《인민극장》이다. 인민을 위하여 남달리 많은 일을 하고 훌륭한 공로를 세운 지식인들과 체육인, 예술인들의 삶도 다 《인민》이라는 이름으로 빛나고있다.

조선로동당의 인민중시의 정치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숭고한 인민관, 인민철학에 뿌리를 두고있다.

인민의 위대한 수령,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를 대를 이어 높이 모시고있기에 조선로동당의 인민중시의 정치는 인민과 더불어 영원한것이다.

조선로동당의 정치는 참다운 인민사랑의 정치이다.

조선로동당은 인민을 떠나서 자기의 존재와 혁명의 진일보에 대하여 단 한시도 생각해본적이 없다.

조선로동당의 인민사랑의 정치에 의하여 만난시련속에서도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적인 승리들이 련이어 이룩되고 인민의 행복이 끝없이 창조되고있다.

인민을 위할수록, 인민의 행복이 커갈수록 혁명대오가 튼튼해지고 혁명이 전진한다는것이 조선로동당의 혁명관이다. 혁명 그자체를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정식화하고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를 존재방식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인민사랑의 정치가 있기에 이 땅에서는 만민이 심장으로 터치는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더 높이 울려퍼지고있다.

어느 한 외국인은 자기의 격동된 심정을 이렇게 피력하였다.

《인민을 떠나 당의 로선과 정책도, 당건설과 활동도 생각할수 없는것이 조선로동당이다.

이번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도 하나로 쥐여짜면 인민이 세상에 부럼

없이 잘사는 끝없이 부흥번영하는 인민의 강국건설을 중심에 놓고 새로운 설계도를 펼친 대회라고 생각한다.

<전당이 위대한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자!>라는 투쟁구호가 이를 잘 말해준다.

인민의 모습을 자기의 당기에 새기고 창건 첫날부터 인민우에 군림한 당이 아니라 인민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며 인민에게 멸사복무하는 당을 건설하신 위대한 수령들의 뜻은 오늘 **김정은**위원장에 의해 굳건히 이어지고있다.》

령도자의 풍모는 전당의 풍모로 전환되게 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손길아래 조선로동당은 인민대중에 대한 멸사복무를 자기의 존재방식으로 내세우고 전당에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 혁명적기풍이 차넘치게 하기 위한 투쟁을 드세게 벌려나가고있다.

제 1 차 전당초급당위원장대회에서 력사적인 결론을 하시면서도 초급당위원장들은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 인민의 참된 충복, 다심한 어머니가 되여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시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절절한 음성은 모든 일군들을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의 길로 힘차게 부르고있다.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로 시작되고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로 이어지는 정치이기에 조선로동당의 정치는 백전백승의 정치로, 만능불패의 과학으로 되는것이다.

조선로동당은 앞으로도 무한한 활력과 왕성한 열정으로 인민을 위해 정을 다하는 헌신의 당, 변함없는 어머니당으로 자기의 무겁고도 성스러운 사명을 다해나갈것이며 어떤 천지풍파가 닥쳐와도 인민들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자기의 본분에 무한히 충실할것이다.

- 제일 중차대한 사업

주체 104(2015)년 8월 폭우와 큰물이라는 자연의 적이 조선의 최북단 라선시의 거리와 마을들을 삼키며 덮쳐들었다.

불과 몇시간동안에 쏟아진 집중폭우가 해발 수백 m 나 되는 산꼭대기들에서 거의 수직으로 단꺼번에 내리쏟아져 모든것을 휩쓴 그밤의 광경은 마치도 전쟁의 참화를 방불케 했다.

뜻밖에 들이닥친 큰물로 피해를 입은 라선시인민들의 생활을 두고 그토록 마음쓰시며 잠못 이루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나라의 최고중대사인 국방사업과 관련한 전략적문제들이 토의되는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라선시큰물피해복구문제를 중요의제로 토의하도록 하시였으며 인민군대가 라선시피해복구를 전적으로 맡아 당창건기념일전으로 와닥닥 끝낼데 대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을 하달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명령에 따라 인민군대의 정예부대들이 즉시에 대건설전역에 전개되여 일제히 건설전투에 진입하였으며 뒤이어 온 나라가 라선으로 달려갔다.

주체 104(2015)년 9월 17일, 이날을 라선사람들, 아니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영원히 잊지 못한다.

하루빨리 라선사람들을 만나보고싶으시여, 인민들에게 안겨줄 주택들을 마련하려고 투쟁해온 군인건설자들을 하루빨리 만나보고싶으시여 비행기로 하늘길을 날으시고 배로 바다길을 달리시여 라선땅에 오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환호하며 달려올 인민들을 걱정하시여 평범한 뻐스를 타시고 먼지 이는 험한 건설장을 일일이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운동화를 신으시고 점심식사마저 잊으시며 인민들이 살게 될 새 집들을 세심하게 돌아보시고는 건설이 빨리 추진되였다고, 정말 가슴이 뿌듯하다고, 새로 짓는 집들을 피해전보다 대상도 안되게 잘 지어야 하며 인민들이 새 집에서 명절을 맞이하게 해야 한다고, 이제는 근심이 다 사라지는것만 갈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의도를 심장마다에 새겨안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인민들과 인민군군인들의 힘찬 투쟁에 의하여 한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라선시의 여러곳에 수많은 현대적인 소층, 단층살림집들이 주변경치와 어울리게 새로 건설되였다.

주체 104(2015)년 10월 7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두번째로 라선땅을 찾으시였다.

불과 30여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또 하나의 선경마을이 생겨났다고 못내 기뻐하시면서 이는 당에 대한 충정의 마음과 인민들에 대한 불타는 사랑을 지닌 우리 군대만이 창조할수 있는 기적이라고, 자신께서는 조국의 수호자,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 당정책관철의 척후대인 인민군대의 최고사령관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한껏 느끼게 된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라선전역에서 발휘한 인민군군인들의 위훈을 생각하면 가슴이 후더워지고 세상에 대고 자랑하고싶은 심정을 금할수 없다고, 기념사진을 찍고 가야지 그대로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군인들이 한자리에 모일 때까지 무려 1시간 30분동안이나 기다려주시여 기념사진을 찍으시는 력사에 전례없는 숭고한 화폭을 펼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 병사들에 대한 철석의 믿음과 군민대단결의 위력,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에 대한 인민들과 인민군군인들의 뜨거운 그리움이 라선의 기적을 창조하였던것이다.

주체 105(2016)년 8월말~9월초, 조선의 함경북도 북부전역에 대재앙이 휩쓸었다. 자연의 광란은 조선의 불굴의 신념과 의지를 다시한번 시험하려는듯 력사에 보기 드문 참혹한 재앙을 불러왔다.

폭풍이 불어치고 무서운 집중폭우가 쏟아져내렸다. 대홍수속에 산이 깎이여 절벽이 되고 순간에 거대한 골짜기가 통채로 메워졌다. 수많은

살림집동네들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논밭들이 자갈밭으로 변하였으며 동구길들이 강줄기로 바뀌여졌으며 철도와 도로, 다리들이 끊어지고 모래속에 묻혀버렸다. 북변의 6개 시, 군이 페허에 잠겼다.

적대세력들은 이것을 보고 《북조선이 심리적쇼크》에 빠지게 되였다느니 뭐니 하고 떠들어댔다.

바로 그 시각 피해를 입은 인민들이 당하는 고통을 두고 그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인민의 아픔보다 더 큰 비상사태는 없으며 인민의 불행을 가셔주는것보다 더 중차대한 혁명사업은 없다는 숭고한 의도로부터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투를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생명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인민사수전, 인민복무전으로 선포하시였다.

당시로 말하면 조선로동당이 발기한 200일전투가 중간단계에 이르러 더욱 고조되고 려명거리건설을 다그쳐끝내는것을 비롯하여 당과 국가앞에 중요한 사업들이 수많이 제기되고있을 때였다.

하지만 인민의 생명재산, 인민의 편의와 리익을 그 무엇보다 중시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200일전투를 큰물피해복구에로 방향전환하며 려명거리건설력량을 비롯한 나라의 모든 력량을 피해복구에 총동원, 총집중하도록 하는 중대조치를 취하시였다.

물론 려명거리건설을 중단하지 않고 계획한대로 내밀면서도 피해복구를 얼마든지 할수 있는 잠재력이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인민에 대한 태도문제였다. 그것은 바로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실현하는것을 최대의 중대사로 내세우고 인민을 위하여서는 천만금의 재부도 아끼지 않으며 지어 생명도 서슴없이 바치는 인민에 대한 최상최대의 사랑과 헌신의 정신인 멸사복무정신이였다.

하기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그처럼 중요한 려명거리건설도 일시 중지하고 피해복구전선에 국가의 인적, 물적, 기술적잠재력을 총동원, 총집중할데 대한 중대조치를 취해주시였던것이다.

려명거리완공의 환희보다 재해지역 인민들의 새집들이소식이 몇천배로 더 귀중하다는것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숭고한 뜻이였고 억만금을 쏟아붓고 나라의 재부를 통채로 기울여서라도 엄혹한 강추위가 들이닥치기전에 인민들에게 훌륭한 새 보금자리를 안겨주어야 한다는것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인민사랑의 세계였다.

북부피해복구전투와 관련한 문제들을 제일중대사로 여기시고 피해지역에 새로 일떠세울 거리들과 살림집들의 형성안과 설계들을 하나하나 지도해주시며 북부전선의 승리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들도 취해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헌신과 로고는 정녕 끝이 없었다.

나라의 전반사업을 진두지휘하시는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피해지역 인민들의 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흰쌀과 고기를 비롯한 식료품들과 생활용품들을 보내주시였다.

뜻밖에 들이닥친 자연재해로 부모들과 보금자리를 잃은 아이들의 마음속아픔까지 헤아리시며 그들에게 사랑의 교복과 민들레학습장을 비롯한 학용품들을 보내주시고 세상에 둘도 없는 아이들의 궁전인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서 즐거운 야영을 하도록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친어버이의 손길아래 피해지역 학생소년들이 야영의 길에 오르는 사랑의 새 전설이 태여났다.

그 숭고한 사랑과 뜻에 떠받들려 강력한 전투부대가 즉시 북부지역의 진지들을 차지하고 인민들의 보금자리건설전투에 진입하였으며 온 나라 각지에서 성의껏 마련한 지원물자들이 북부전선에로 가닿았다.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조선인민은 전대미문의 혹심한 피해후과를 가시기 위한 투쟁에 산악같이 떨쳐일어나 일심단결의 거대한 위력으로 기적적승리를 이룩하였다.

피해를 입은지 60 여일만에 세계는 큰 재앙속에서 솟아오른 새로운 창조의 신화를 보았다.

60 여일, 한 나라, 한 민족의 력사에서 60 여일은 너무나 짧고도 짧

은 력사의 한순간이라고 할수 있다. 보통나라에서는 잘해야 재난을 털어버리기 위한 준비기간 아니면 시작기간이라 할수 있을것이며 자본주의세계에서는 속수무책의 시기라고 할수 있을것이다.

그런데 인민의 나라인 조선에서는 이 짧은 력사의 한순간에 창조의 기적이 일어났다.

세계는 1 만 1 900 여세대의 희한한 살림집들이 솟아오른 기적을 보았으며 100 여개의 탁아소, 유치원, 학교, 병원, 진료소들이 일떠서 사회주의선경마을, 사회주의선경거리로 꾸려진 기적을 보았으며 페허에서 철도와 다리, 제방들이 보기 좋게 일떠선 기적을 보았다.

그 무슨 《심리적쇼크》에 대해서 떠들던 원쑤들이 주저앉아 입을 다물고 질겁하였다.

세계 여러 나라의 언론들은 북부피해복구전투의 기적적인 승전소식을 앞을 다투어 전하며 《오직 조선에서만 있을수 있는 사변적인 기적》이라고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세계가 경탄하는 조선의 이 자랑찬 현실을 두고 남조선출판물들은 조선인민의 최고령도자동지께서 200 일전투의 주타격방향을 북부피해복구전선으로 전환하도록 하신것은 《**김정은**위원장이 지닌 인민사랑의 집중적표현》이라고 하였다.

10 여년전 8 월 《커트리너》태풍이 미국의 남부를 휩쓸었다. 50 년래의 가장 파국적인 대재난을 몰아왔다는 태풍이 지나간 한 도시의 피해상황은 말이 아니였다.

물의 바다로 변한 도시, 물우에서 떠다니는 시체들과 먹을것, 입을것이 없이 시체와 오물가운데서 사는 사람들, 살림집들과 상점에서 도적질한 《전리품》을 가득 넣은 커다란 자루를 등에 지고 동분서주하는 젊은이들, 밀차에 앉아 숨진채로 며칠째 담벽구석에 그대로 내버려져있는 로파…

전쟁을 겪은 이라크의 바그다드를 방불케 하였던 태풍피해지역은 3

년세월이 지나도록 피해를 가시지 못했다. 혹심한 피해를 입은 곳에서 살림집도 먹을것도 없이 생활하고있는 태풍피해지역 사람들, 그들은 비닐박막이나 누덕누덕 기운 천쪼박들로 뜸막 같은것을 만들고 그안에 꼬부리고 누워있는가 하면 하수도와 다리의 구석구석에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있기도 하였다. 그런가하면 길거리에 나와 구걸하거나 강도질을 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었다. 삶을 포기하고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오죽했으면 유엔사무총장 특사가 이 지역을 돌아보고 너무도 기가 막혀 피해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비참한 생활을 하고있는데 그에 대한 똑똑한 구제조치하나 취하지 않고있다고 미국정부를 로골적으로 비난해나섰다.

3년이 지나도록 태풍피해를 가시지 못한 미국의 《커트리너》태풍피해지역과 불과 60여일만에 전쟁을 겪은것과 같은 태풍피해후과를 털어버리고 선경거리, 선경마을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난 사회주의조선의 천여리 두만강지구는 판이한 대조를 이루었다.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의 참다운 우월성과 기만적인 《만민복지》, 《만민평등》을 부르짖는 자본주의의 반인민성, 반동성을 적라라하게 웅변적으로 보여준 하나의 실례였다.

이 하나의 사실을 통해서 사회주의는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며 인민의 운명을 지켜주고 꽃피워주는 인민의 락원이며 자본주의는 인민대중에게 불행과 고통만을 들씌우는 인민의 무덤이라는것을 알수 있다.

대재앙의 페허가 인민사랑의 무릉도원으로 전변되고 함북도 북부피해지역에 조선로동당만세, 사회주의만세소리가 천지를 진감한 사변이야말로 인민의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높이 모신 진정한 인민의 나라, **《전당이 위대한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나가는 참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하에서만 이룩될수 있는 기적중의 대기적이였다.

3.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의 력사는 곧 인민이 걸어온 길이고, 우리 당의 힘은 곧 인민의 힘이며 우리 당의 위대함은 곧 인민의 위대함이고 우리 당이 이룩한 승리는 위대한 우리 인민의 승리입니다.》

인민대중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며 결정적요인이다. 그런것만큼 사회력사발전, 혁명발전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 풀어나가는 이외에 다른 묘술이 있을수 없다.

인민대중의 힘에 의거하였기에 어느때나 승리라는 절대값만을 산출하는것은 조선의 움직일수 없는 론리이다.

수학의 공식처럼 그 값이 오직 하나뿐이고 물질운동의 법칙과 같이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그렇게밖에 될수 없는것, 생명의 속성과 같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 존재자체가 성립될수 없는것과 같은 그것이 조선의 승리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조선의 당당한 존재와 승승장구는 과학의 공식이나 론거처럼 부정할수 없다.

과학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절대의 법칙이다.

조선의 승리는 과학이라는것은 바로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어제도 이기고 오늘도 이기는 나라, 적들이 공세를 가해올수록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을 발동하여 천배만배로 강해지고 더 높이 솟구치는 조선의 전설적힘에 대하여 내린 정의이다.

과학의 유일한 척도는 력사적체험과 실재한 사실이다.

조선혁명의 력사와 오늘의 현실은 바로 인민대중을 믿고 그들의 무궁무진한 힘을 총폭발시켜온 불변의 백승사로 줄기차게 끊임없이 이어져왔다. 인민대중에게 철저히 의거하였기에 언제나 승리는 조선인민에게 반드시 영광을 주었으며 원쑤들에게는 매번 수치와 파멸을 주었다.

오늘 조선은 적대세력의 반공화국압살책동속에서도, 겹쌓이는 시련

과 난관속에서도 끄떡없이 더욱 강대해지고 도도하게 솟구쳐오르고있다.

인민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이룩된 승리, 그것은 영구불멸의 대법칙으로, 과학으로 정해져있는 조선의 자리길이고 이미 세워져있는 리정표이다.

△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백승을 떨쳐온 자랑찬 력사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사를 놓고보면 조선혁명만큼 어렵고 복잡한 혁명, 전인미답의 간고한 길을 헤쳐온 혁명은 찾아볼수 없다.

아마 다른 나라들같으면 열백번도 더 무너지고 천만번도 더 포기했을 고난과 시련의 련속이였다.

이처럼 엄혹한 속에서도 조선로동당이 조선혁명을 오직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올수 있은것은 전적으로 인민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전진시켜왔으며 전체 인민이 당의 위업, 사회주의위업을 충직하게 받들어온데 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시종일관 각성되고 단결된 인민의 힘은 무궁무진하다고 보시였다.

이 세상의 모든것이 다 한계점을 가지고있어도 인민의 힘만은 절대적으로 무한하다는것, 인민의 힘만 발동하면 세상에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이 바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굳건히 믿으시는 인민의 위력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령도의 전기간 준엄한 난국에 부닥칠 때마다 인민을 먼저 찾고 인민의 소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였으며 인민의 진정에서 무궁무진한 힘을 얻군 하시였다.

혁명의 준엄한 년대들마다 인민은 당에 무한한 힘과 용기를 주었고 강의한 의지로 력사의 험한 풍파속을 뚫고오며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언제나 당과 운명을 함께 하였다.

전지전능한 인민대중의 창조력은 조선로동당이 세기적인 락후와 빈궁이 지배하던 이 땅우에 자주, 자립, 자위의 강대한 사회주의성새를 일떠세우고 적대세력의 악랄한 봉쇄속에서 강국건설의 새시대를 열어놓을수 있게 한 기적의 원천이였다.

- 《일속》이 《창해》를 이긴 력사의 기적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지난 항일혁명전쟁과 조국해방전쟁에서 수적으로, 기술적으로 우세한 제국주의강적들을 정치사상적, 전략전술적우세로 타승하심으로써 강철의 령장, 탁월한 군사전략가, 반제투쟁의 승리의 상징으로 세상사람들의 다함없는 칭송과 신뢰를 받으시였다.》

《창해의 일속》, 이 말은 바다속의 좁쌀알만 한 존재라는 뜻으로서 일제가 조선인민혁명군을 비속화하여 비유한 말이였다.

실지로 조선인민혁명군이 창건될 당시의 인원수는 불과 100여명밖에 되지 않았다. 이런 무장대오가 100만의 일본관동군, 비행기와 땅크와 같은 현대적무기로 장비한 정예무력을 짓부시고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였다.

항일혁명투쟁은 조선인민이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20성상에 걸쳐 진행한 인류력사상 처음으로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자신의 힘에 의거하여 외래제국주의침략자들을 물리치고 민족의 자주권과 나라의 독립을 이룩한 영광스러운 민족해방혁명이였다.

또한 그것은 상비적인 무장력에 의거하여 반혁명세력을 격파하고 피압박근로대중의 자유와 해방을 실현한 가장 높은 형태의 혁명전쟁이였으며 국가적후방도, 정규군의 지원도 없이 강대한 적과 맞서 싸워이긴 류례없이 간고하고도 장기적인 혁명투쟁이였다.

이 투쟁에서 《일속》이 《창해》를 타승할수 있었던 그 근본비결은 바

로 자체의 힘, 조선인민혁명군과 조선인민의 힘에 있었다.

…

하느님도 임금도 영웅도
우리를 구제못하리
우리는 다만 제손으로
해방을 가져오리라
…

하느님과 임금에게서 구원을 청하던 환각에서 벗어나 근로대중이 투쟁무대에 떨쳐나설것을 호소한 가요 《인터나쇼날》이 나온지도 백수십년이 지나가고있다.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가려는 인민이 믿을것이란 오직 자기자신의 힘뿐이다.

자기를 믿고 자주적으로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인민은 아무리 어려운 고난과 시련을 겪는다 해도 승리와 영광의 상상봉에 오를수 있다는것, 하지만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남의 힘에 매달리는 인민은 일시적으로는 편안할지 몰라도 종국적으로는 전쟁에서 패배와 노예의 운명을 면치 못한다는것, 이것은 20세기의 총화이기도 하다.

싸움에서의 승패는 무엇보다 군대의 사상과 정신상태에 의하여 결정된다. 사상정신적으로 허약한 군대가 승리를 거두었다는 사실은 그 어디에도 없다.

주체 25(1936)년 여름 구국군 부대장이였던 만순이 위대한 수령님께 이런 질문을 제기한적이 있었다.

그는 조선인민혁명군이 여러 전투들에서 거둔 성과를 몹시 부러워하면서 저 멀리 춘추전국시대로부터 중국명장들은 지략으로 이기고 일본사람들은 호전성으로 싸움을 하는데 김사령은 도대체 어떤 전법으로 싸우

기에 련전련승하는가고 물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에게 전법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것은 군인들의 정신상태라고 말씀해주시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의 사상정신상태가 항일대전의 승패를 좌우하게 된다고 확신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무장투쟁초기부터 대원들모두를 불굴의 애국신념과 굳센 혁명적의지를 지닌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로, 담대한 배짱가들로, 미래에 대한 락관으로 가슴불태우는 열혈투사들로 키우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으시였다.

바로 이 나날에 불굴의 신념과 의지로 일떠선 로흑산의 전설과 천교령의 기적이 이룩되고 민족의 정기가 사멸당하던 엄혹한 정세속에서 조선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것을 온 세상에 시위하고 겨레를 조국해방성전에로 더욱 힘있게 고무추동한 보천보전투와 무산지구전투와 같은 가슴벅찬 국내진공작전들이 단행되였다.

항일혁명투쟁을 돌이켜볼 때 조선인민의 기억속에 아마도 제일먼저 떠오르는것은 고난의 행군일것이다.

고난의 행군은 위대한 수령님의 친솔밑에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가 주체 27(1938)년 12월 상순부터 주체 28(1939)년 3월에 걸쳐 겹쌓인 곤난을 이겨내면서 남패자로부터 압록강연안 국경일대에로 진출한 력사적인 행군을 말한다.

주체 27(1938)년 하반기 혁명정세는 매우 어렵고 복잡하였다. 혁명앞에 조성된 난관은 일제침략자들의 발악적인 《토벌》공세와 함께 외부로부터 강요된 좌경모험주의《로선》에 의하여 더욱더 커졌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난국에 처한 조선혁명을 계속 앙양에로 이끄시기 위하여 주체 27(1938)년 12월 상순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친솔하시고 압록강연안 국경일대에로의 간고한 행군길에 오르시였다.

바로 이 행군이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전고미문의 시련의 혈로였으며 피어린 전투로 낮과 밤을 이은 100여일간에 걸친 고난의 행군이

였다.

주체 27(1938)년 겨울 일제는 《동변도토벌작전》이란 명목하에 《대소탕전》의 주되는 목표를 조선인민혁명군 사령부에 두고 관동군 주력과 위만군정예부대, 무장경찰대, 자위단을 비롯한 수십만의 병력을 동원하여 이중삼중의 포위망을 형성하고 지상부대와 항공대의 협동작전으로 사면팔방에서 협격하면서 진드기처럼 달라붙었다. 적들은 전면적인 군사적 공세를 감행하는 동시에 조선인민혁명군을 내부로부터 와해하기 위하여 《귀순공작반》과 같은 간첩집단을 동원하고 비행기로 삐라를 살포하는 등 온갖 회유기만책동을 집요하게 감행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는 이러한 정황속에서 100년래의 대강설로 눈이 키를 넘고 령하 40℃를 오르내리는 대륙의 혹한과 설한풍을 이겨내며 매일같이 앞뒤좌우에서 악착하게 달려드는 수천수만의 적들과 피어린 전투를 하여야만 하였다. 또한 식량난까지 겹쳐 사정은 더욱 어려웠으며 소금마저 떨어져 온몸이 붓고 손과 발은 얼어터졌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친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조금도 락망하지 않았으며 억천만번 죽더라도 원쑤를 치자는 굳센 투지와 불굴의 혁명정신으로 만난을 극복하고 불사조처럼 싸워 승리하였다.

항일혁명투쟁에서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사령부의 안전을 위해 날아오는 적탄도 한가슴으로 막아나섰으며 사령부로 가장하고 수천의 적을 달고 나팔소리를 울렸다.

《조선혁명 만세!》를 소리높이 웨치며 적의 화구를 몸으로 막아 부대의 돌격로를 개척하고 세계혁명전쟁사에서 첫 육탄영웅으로 기록된것도 조선인민혁명군 대원이였다.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적들의 갖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스스로 자기의 혀를 자르며 혁명적지조를 지켰으며 적들에게 두눈을 빼앗기고도 사형장에서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고 웨쳤다. 기어이 살아 원쑤를 치기 위해 혁명가요를 부르며 썩어들어가는 자기의 발을 양철톱으로 스스로 자른 대원도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의 첫 시기부터 온 나라, 온 민족을 망라하는 거족적이며 조직적이며 적극적인 반일항전으로 나라의 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독창적인 전민항쟁로선을 제시하시고 일관하게 견지하시였다.

지난 시기 침략자들을 반대하고 자유와 사회적진보를 위해 떨쳐나선 나라와 민족들이 승리를 이룩한 경우를 돌이켜보면 그것은 주로 무장을 들고 싸움에 나선 군대나 그와 같은 무장집단에 의하여 이룩된것이였다.

물론 그러한 싸움에는 그 정의적성격으로 하여 총을 든 군대만이 아닌 인민대중도 참가하였다.

조선에서의 임진조국전쟁이나 로씨야에서의 사회주의10월혁명이 그러한 례로 될수 있을것이다. 그러나 임진조국전쟁에는 광범한 대중이 조직적으로 참전하지 못하였으며 10월혁명에도 도시를 기본지역으로 하여 로동자, 병사들이 주로 참가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제와의 항일대전을 선포하시면서 일제와의 대결은 전체 조선인민과의 총대대결로 된다는것을 명백히 선언하시고 전민항쟁의 기치를 높이 추켜드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전쟁을 개시한 초기에 벌써 두만강연안에 창설한 해방지구형태의 유격구들에서 전민을 의식화, 조직화하는것과 함께 전체 인민을 무장화하는 실천적모범을 창조하시여 전민항쟁의 위력을 높이 떨치시였다.

조선혁명의 만난사연과 함께 빛나는 한페지로 기록된 소왕청유격구와 그 방위전투는 이에 대하여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항일혁명투쟁의 첫 시기 조선혁명은 조선인민혁명군과 함께 소왕청유격구의 넓지 않은 지역에 하나로 응결되였다고 말할수 있었다. 적들은 사면팔방에서 하늘과 땅으로 5 000여명의 정예병력을 내몰아 90여일간의 끈질긴 《초토화작전》을 감행하였다.

그때 유격구에는 무장인원이 겨우 2개 중대의 력량밖에 없었다. 전

투기술기재의 차이는 말할것도 없고 무장력량상 대비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90 여일간의 간고한 투쟁끝에 끝끝내 유격구를 사수할수 있은 근본비결은 바로 전민항쟁에 있었다.

조선인민혁명군과 인민들은 적의 무기를 빼앗아 자체를 튼튼히 무장하는것과 함께 유격구의 곳곳에 적들이 쳐들어올수 없게 여러가지 방어시설들을 갖추어놓고 적들이 덤벼들 때마다 군민의 단합된 힘으로 결사전을 벌렸다.

로인들과 어린이들까지 총동원되여 목숨걸고 싸운 결과 적들이 비행기와 대포를 앞세우고 쉽게 소멸해버릴것이라고 타산한 소왕청유격구는 행복의 보금자리로, 더욱 억세게 전진할 혁명의 대지로 굳건히 수호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1940 년대 전반기 조국해방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전인민적항쟁태세가 빈틈없이 갖추어지게 된것은 무장한 인민의 힘으로 강대한 일제침략자들을 때려부시고 최후승리를 이룩할수 있게 한 확고한 담보로 되였다.

라진해방전투에 참가하였던 쏘련의 한 군관은 자기가 쓴 글《조선에서의 수기》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 우리들이 도시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 기관총의 따르륵소리와 포사격소리가 들려왔다.

도시변두리로 나온 조선농민들이 손을 휘저으면서 <만세!>소리를 웨치고있었다. 그들의 말을 들으면 시내에서는 벌써 이틀째 **김일성**빨찌산부대와 일본군사이에 전투가 벌어지고있다는것이였다. 라진시의 조그마한 광장들과 좁다란 길거리들은 적군의 자동차들과 짐수레들로 미여질듯 꽉 차있었다. 조선빨찌산들이 일본군의 퇴로를 막고 그들이 도시에서 빠져나갈수 없게 만들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우리들과 빨찌산들사이에 갇히게 된 일본사무라이들은 무기를 내던지고 포로로 되기 시작하였다.》

이렇듯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의 맹렬한 공격과 적극적인 전민항쟁

에 의하여 결정적타격을 받은 일제는 최후공격작전이 시작된지 1 주일만인 8 월 15 일 황급히 무조건항복을 선언하였다.

조국해방의 날을 일일천추로 고대하던 조선인민은 《**김일성**장군 만세!》, 《조선독립 만세!》를 소리높이 부르고 또 불렀다.

세계에는 외래침략자들을 몰아내기 위해 유격전을 벌린 나라도 많고 정규무력에 의한 현대전을 벌린 나라도 적지 않다. 그러나 조선에서처럼 극히 어려운 조건에서 자체의 힘으로 무력항쟁을 벌린 실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제 2 차 세계대전때 유고슬라비아빨찌산은 유고슬라비아가 도이췰란드에 의해 강점된 1941 년도부터 시작하여 수년간의 투쟁을 벌리면서 정규군의 토대에 의존하는 한편 이미 혁명이 승리한 나라 사람들의 도움도 많이 받았다.

중국인민이 벌린 항일전쟁을 보아도 국민당의 수백만군대가 비록 소극적이기는 했지만 반일의 기발을 들고 일본군과 교전을 하여 얼마간이라도 일본군을 견제했다면 그것은 중국인민이 벌린 유격전쟁에 대한 정규군의 지원으로 된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하지만 항일혁명투쟁의 전과정은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자체의 힘으로 주체적인 혁명무력을 창건하고 조선인민혁명군의 적극적인 무장투쟁과 함께 전민항쟁으로 강도 일제와의 최후결전에서 승리하고 나라를 해방시킨 과정이였다.

조선인민의 항일혁명투쟁은 자기의 힘, 전체 인민의 힘에 의거할 때 반드시 일제를 타도하고 나라를 찾을수 있다는것을 세계에 뚜렷이 보여주었다.

- 나래쳐오른 전설속의 천리마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천리마의 대진군으로 세기적인 변혁을 이룩한 전세대들의 투쟁정신을 이어 누구나 시대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는 만리마선구자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평양시 모란봉기슭의 만수대에는 《천리마동상》이 있다. 주체50(1961)년에 세운 《천리마동상》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붉은 편지》를 높이 추켜든 로동자와 벼단을 안은 녀성농민이 날개를 펼치고 하늘높이 날아오르는 천리마를 함께 타고 질풍같이 달리는 모습을 형상한 청동조각상과 흰재빛화강석으로 된 조각대로 이루어졌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를 하루빨리 건설하려는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지향과 불타는 혁명적열정을 반영하고있는《천리마동상》은 천리마운동을 주제사상적내용으로 하고있다.

전설적인 동물로서 비상히 빠른 속도를 상징하는 날개돋친 천리마를 타고있는 로동자와 농민의 형상은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정치사상적으로 통일단결된 조선인민이 세기적변혁을 일으키고있는 장엄한 현실과 그속에서 시대의 영웅으로 자라나는 천리마기수들의 전형적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천리마동상은 조선인민의 영웅적기개를 시위하는 기념비로, 천리마조선의 상징으로 세계에 널리 알려져있다.

조선에서 사회주의건설의 대고조를 일으킨 천리마운동은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주체45(1956)년 12월전원회의를 계기로 시작되였다.

이 시기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셨던 철의 신념과 의지는 당이 있고 주권이 있고 인민이 있고 령토가 있는 이상 세상에 못해낼 일이 없다는 바로 그것이였다.

인민의 힘을 크게 믿으시고 그들에 의거하여 조성된 엄혹한 난관을 타개해나가실 확고한 결심과 의지를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45(1956)년 12월 강선제강소를 찾으시여 나라가 처한 어려운 형편을 하나하나 알려주시고 자신께서는 우리 로동계급밖에 믿을데가 없기때문에

당신들을 찾아왔다고, 지금 형편에서 강재를 계획보다 1만t만 더 생산하면 나라가 허리를 펴겠다고, 강재문제는 전적으로 동무들에게 맡긴다고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믿음은 그대로 강선로동계급이 소극성과 보수주의, 기술신비주의를 대담하게 타파하고 천리마대고조의 첫 봉화를 추켜들게 한 커다란 고무적힘이였고 온 나라 로동계급과 인민이 떨쳐나 혁명적대고조의 불길높이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일대 기적과 혁신을 창조할수 있게 한 위력한 힘의 원천이였다.

인민대중에 대한 크나큰 믿음과 기대는 오직 수령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인민대중의 열화같은 충정을 낳았다.

안팎의 복잡한 정세와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의 책동으로 하여 조선혁명이 시련을 겪고있을 때 조선인민은 오직 위대한 수령님만을 믿고 따랐으며 수령님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를 표시하였다.

이것은 《수령님, 우리에게는 공칭능력이 따로 없습니다. 수령님께서 요구하시고 바라시는것이 곧 우리의 공칭능력입니다.》라고 한 강선로동계급의 신념의 목소리에 힘있게 맥박치고있었다.

그리고 《수상님! 얼굴이 많이 축간것 같은데 너무 근심하지 마십시오. 종파놈들이 인민생활이 어찌고어찌고 떠들어도 이제는 다 잘살게 되였으니 일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기지 종파놈들이 이기겠습니까? 념려마십시오. 우리는 수상님을 지지합니다.》라고 한 태성할머니의 소박하고 진정어린 말에도 뜨겁게 어려있었다.

조선인민은 **《천리마를 탄 기세로 달리자!》**라는 위대한 수령님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남이 한걸음 걸을 때 열걸음, 백걸음을 달려나갔으며 온갖 소극성과 보수주의, 기술신비주의를 불사르면서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갔다.

당시 사대주의자들은 기술에 대한 신비성을 내걸고 수입타령만을 하였으며 어떤 나라 사람들은 조선에서 현대적인 기계들을 생산하는것은

때가 이르고 또 수지도 맞지 않으니 원료나 생산하고 기계는 사다쓰는것이 좋다고 하였다.

만일 이자들의 말대로 광석이나 계속 캐내서 다른 나라에 원료를 팔아 살아나간다면 지난날의 뒤떨어진 처지에서 영원히 벗어날수 없고 후손들에게는 텅 빈 굴밖에 넘겨줄것이 없게 될것이였다.

또한 기계를 자체의 힘으로 만드는것이 어렵고 힘들다고 하여 기계를 사다가 나라의 공업화와 기술개건을 하려고 한다면 몇십년이 걸릴지도 모를뿐아니라 어느때 가서도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할수 없을것이였다.

타닝반을 한대 사오는데만도 많은 외화가 드는것은 물론 4 년이라는 오랜 기간이 걸려야 하였다. 이런 식으로 기계를 사다가 사회주의를 건설한다면 조선인민은 천리마를 타고 남보다 앞서나갈수 없을것이였다.

바로 이것을 자각한 조선인민이기에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라는 불굴의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이악한 투쟁을 벌려 사대주의자들과 기술신비주의자들, 대국주의자들의 궤변을 단호히 짓부셔버렸다.

어느 한 농기계공장과 자동차수리공장의 로동계급은 비록 설계도면 한장 없고 전문생산설비도 없으며 만들어본 경험도 없는 조건이였지만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뜨락또르와 자동차를 기어이 만들 대담한 목표를 세우고 이악한 투쟁을 벌렸다.

소농기구나 만들고 자동차수리나 하던 자그마한 공장에서 뜨락또르와 화물자동차를 만들어낸다는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였지만 그들은 뜨락또르와 자동차를 분해하여놓고 그것을 보면서 도면을 한장한장 그렸고 실물과 대비해보면서 수천종에 달하는 부속품을 깎았다. 거듭되는 실패에도 그들은 동요와 실망을 몰랐으며 열백번을 다시 깍고 몇천번을 뜯었다 맞추는 한이 있어도 자체의 힘으로 끝까지 만들어내고야 말겠다는 생각으로 기적을 창조하였다.

그리하여 《천리마》호 뜨락또르는 불과 30 여일만에 만들어내고 《승리 58》형화물자동차는 40 일동안에 만들어내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자력갱생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는 가운데 자체의 기술, 자체의 힘으로 기중기, 굴착기, 불도젤, 전기기관차, 대형공작기계들을 짧은 기간에 생산해내는 커다란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이러한 투쟁기풍은 중소규모 공장, 기업소들에서도 높이 발휘되여 불과 한해사이에 공작기계새끼치기운동으로 국가계획외에 1 만 3 000 여대의 공작기계가 더 생산되는 기적이 창조되였다.

천리마대고조의 나날들에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는 매일과 같이 혁신이 일어났으며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기적들이 련이어 창조되였다.

조선의 로동계급과 인민들은 6 만 t 능력의 분괴압연기에서 12 만 t 의 강편을 밀어내고 19 만 t 밖에 생산할수 없다던 용광로에서 27 만 t 의 선철을 뽑았으며 3~4 년이 걸려야 한다던 넓은철길부설공사를 불과 두달반동안에 완수하고 7 000 세대분의 자재, 자금, 로력을 가지고 2 만세대의 살림집을 건설하였다.

천리마대고조속에서 조선인민은 5 개년계획을 공업총생산액적으로는 2 년반에, 현물지표별로는 4 년동안에 넘쳐 수행하였으며 주체 46(1957)년부터 주체 49(1960)년까지의 기간에 공업총생산액을 해마다 평균 36.6%라는 기적적인 속도로 장성시켰다. 주체 46(1957)년부터 주체 59(1970)년에 이르는 공업화의 전기간에는 공업생산을 해마다 평균 19.1%의 높은 장성속도로 발전시켰다.

조선의 로동계급과 근로자들은 자본주의나라들이 옹근 한세기 지어는 몇세기에 걸쳐서 한 공업화의 어렵고 방대한 과업을 불과 14 년밖에 안되는 매우 짧은 기간에 빛나게 실현하였다.

그 나날 전설속의 천리마가 혁명의 천리마로 나래펼치게 되였으며 조선인민은 천리마의 고삐를 억세게 틀어쥐고 《천리마의 나라》, 《천리마조선》의 영웅적기상을 온 세상에 힘있게 과시하였다.

이 시기 조선에서 날에날마다 세상사람들을 놀라게 한 기적적인 성

과들이 이룩된것은 다름아닌 인민의 힘,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과 투쟁기풍이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였으며 그 뚜렷한 생활력이였다.

하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때를 감회깊이 회고하시면서 우리에게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있었기때문에 천리마를 탈수 있었다고, 누가 우리에게 천리마를 태워준것이 아니라고 뜻깊게 교시하시였다.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승리를 이룩하는 빛나는 현실

오늘 조선은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에 의거하여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다.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반공화국제재와 압살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뚫고나가며 최대의 속도로 전진하고 비약하며 세인의 경탄을 자아내는 조선의 현실은 바로 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친 인민의 힘이 낳은 빛나는 결실이다.

- 조선의 유일한 《특허》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천만군민의 일심단결은 우리의 최강의 무기이며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위력한 추진력입니다.

우리는 당은 인민을 믿고 인민은 당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혼연일체의 위력으로 혁명의 붉은 기폭에 승리만을 아로새겨온 일심단결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끝까지 변함없이 이어나가야 합니다.》

세상사람들은 조선의 불패의 힘의 원천은 당과 인민의 일심단결에 있다고 말하고있다.

흩어지면 모래알처럼 짓밟히고 뭉치면 산악처럼 솟아난다는 말이 있다. 혁명투쟁에서는 뭉치면 승리하고 흩어지면 패한다. 이로부터 단결은

혁명의 생명이며 혁명승리의 확고한 담보라고 하는것이다.

일심단결은 조선의 상징이며 일심단결에 조선식 사회주의의 불가항력적위력이 있다.

일심단결은 광범한 대중이 당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결속된 사상적순결체, 혁명적동지애와 의리에 기초하여 뭉쳐진 도덕의리적결합체이다.

전체 인민이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진 단합인것으로 하여 일심단결은 그 어떤 천지풍파에도 끄떡없다.

일심단결은 사람들의 단순한 기계적결합이나 산수적인 합계가 아니다. 모든 사회성원들이 당의 로선과 방침을 사활적인 요구로 받아들이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서 뜻도 하나, 마음도 하나, 지향도 하나로 되고 운명도 미래도 하나로 합쳐진것이 다름아닌 일심단결이다.

일심단결은 공동의 정치적목적과 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로 광범한 대중을 한결같이 일떠세우고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켜 혁명과 건설을 추동해나간다.

바로 조선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령도따라 일심단결, 혼연일체의 위력으로 적대세력의 책동을 짓부시며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전진시켜나가고있다.

오늘 조선에서는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이 더욱 억척같이 다져지고있다.

인민군군인들은 혁명보위, 인민보위의 보검을 틀어쥐고 당에서 중시하는 최전선, 최전방들에서 결사관철의 모범들을 창조하여 온 나라에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불길을 지펴올리고 군민대단결을 강화하는데서 자기의 본분을 다하고있다.

청년들은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전위들답게 어렵고 힘든 전투장들마다에서 당의 부름에 물불을 가리지 않고 투쟁함으로써 영웅청년의 슬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떨치고있다.

영웅적인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과 농업근로자들, 지식인들, 녀성들 은 당을 백옥같은 충정과 증산성과로 받들며 친혈육의 정으로 서로 돕고 이끄는 숭고한 정신도덕적풍모를 발휘하고있다.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일군들이 전진하는 대오의 앞장에서 군중과 고락을 같이하고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고있다.

하기에 세계는 조선의 불패의 힘의 원천은 바로 당과 인민의 일심단결에 있다고 한결같이 인정하고있다.

주체 105(2016)년 **김일성**종합대학창립 70 돐기념 국제학술토론회에 참가하였던 중국 연변대학의 한 경제학박사는 론문 《일심단결은 조선특유의 생산력이다》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김정은**국무위원장께서 믿으신것은 일심단결이였다.

그이께서는 인민의 단합된 힘만 있으면 설계도 설비도 자재도 자금도 다 나올수 있다고 확신하시였다.

그이의 호소따라 온 나라가 떨쳐나 지난 4 월에 착공한 려명거리의 방대한 살림집 및 **김일성**종합대학건물들의 골조공사는 2 개월 남짓한 기간에 끝났으며 제일 높은 70 층살림집골조공사도 불과 74 일만에 끝났다.

이것은 일반적인 경제학원리만으로는 리해할수 없는것이다. 일심단결이라는 정치적무기를 가장 위력한 생산력으로 보는것이 조선경제의 지속적인 장성요인을 리해할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과학적이며 합리적인 열쇠라고 나는 당당히 말한다.

그러면서 조선이 일심단결이라는 특유한 생산력을 더욱 강화하는 방식으로 국제적인 경제적제재와 고립압살의 포위망을 헤쳐나갈것이며 가까운 앞날에 세계적인 경제강국으로 솟구치리라고 믿는다.》

사람들은 흔히 이 세상에서 가장 위력한 무기라고 하면 핵무기를 념두에 두고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세상에 핵무기의 물리적힘을 릉가하는 그보다 더 위력한 무기가 있다는데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있다.

조선의 일심단결은 핵무기보다 더 위력한 무기이다. 일심단결, 그것은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 최상최대의 무기이다.

일심단결은 오직 조선에만 있고 조선에만 있을수 있는 특허무기이다.

- 만리마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의 만리마대진군에서 영웅적조선인민의 불굴의 정신력을 남김없이 폭발시켜야 합니다.》

최근 조선의 정신과 기상이 함축된 하나의 말이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시대를 진동시키고있다.

만리마!

조선의 그 어디에 가나 자주 보고 듣을수 있는 말이다.

만리마속도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최악의 역경속에서 최상의 기적적승리를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쟁취해나가는 신화적인 사회주의강국건설속도이다.

만리마속도는 한달음에 만리를 내닫는 만리마와 같이 질풍같이 달려 어제와 오늘,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강산을 변모시키는 속도이다. 이 속도는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높은 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전인민적인 대진군속도이며 불굴의 정신력과 과학기술력을 정수로 하는 자강력을 원동력으로 하여 창조되는 속도이다.

조선은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만리마속도로 끝없이 륭성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다그쳐나가고있다.

사회주의강국은 국력이 강하고 끝없이 륭성번영하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인민의 락원이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은 적대세력들의 도전과 방해책동을 짓부시고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뚫고나가야 하는 어렵고 방대한 투쟁이다. 누구도

조선을 도와주려고 하지 않으며 조선이 통일되고 강대해지며 잘살고 흥하는것을 바라지 않는다.

조선이 믿을것은 오직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전체 인민의 불굴의 정신력이다. 하기에 조선로동당은 자강력제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인민대중의 불굴의 정신력을 총폭발시켜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다.

전체 인민이 불타는 혁명적열의와 애국적헌신성을 높이 발휘하여 10년을 1 년으로 주름잡으며 만리마의 속도로 내달리는 조선에서는 아침과 저녁이 다르고 어제와 오늘이 다르게 신비로운 속도로 강산이 변하고있다.

오늘 조선인민은 《우리는 만리마기수》의 노래를 힘차게 부르며 천하제일강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질풍같이 내달리고있다.

이것은 최근 몇년동안에 솟아오른 기념비적건축물들의 일부를 놓고 보아도 잘 알수 있다.

주체 101(2012)년에 단천항, 곽산간석지 2 계단건설, 남포-평양바다물수송관건설, 창전거리, 인민극장, 만수교고기상점과 청량음료점, 보통강수산물상점, 릉라인민유원지, 양각도체육촌, 인민야외빙상장, 로라스케트장, 통일거리운동쎈터, 류경원,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 평양창전소학교, 경상유치원과 경상탁아소가 새로 일떠섰으며 김형직사범대학, 만경대유희장과 대성산유희장이 훌륭히 개건되였다.

주체 102(2013)년에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 미림승마구락부, 문수물놀이장, 은하과학자거리,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옥류아동병원, 류경치과병원, 마식령스키장, 국가과학원 중앙버섯연구소가 새로 일떠섰으며 평양체육관이 훌륭히 개건되였다.

주체 103(2014)년에 갈마식료공장, 위성과학자주택지구,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로동자합숙, 연풍과학자휴양소, 평양육아원과 애육원이 새로 일떠섰으며 5 월 1 일경기장,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가 훌륭히 개건되였다.

주체 104(2015)년에 평양국제비행장 항공역사, 갈마비행장, 원산육아원과 애육원, 평양양로원, 국가우주개발국 위성관제종합지휘소, 평양강냉이가공공장, 평양시 사동구역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 창광상점, 라선시 선봉구역 백학동, 미래과학자거리, 과학기술전당, 청천강계단식발전소, 조국해방전쟁사적지, 신천박물관이 새로 일떠섰고 종합봉사선 《무지개》호가 대동강에 자기의 모습을 나타냈으며 평양메기공장과 평양어린이식표품공장, 평천혁명사적지, 원산구두공장,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이 훌륭히 개건되였다.

주체 105(2016)년에 원산군민발전소, 홍건도간석지(1 단계), 황해남도 물길(1 단계), 자연박물관, 류경안과종합병원, 평양중등학원, 청년운동사적관, 보건산소공장, 평양체육기자재공장, 민들레학습장공장이 새로 일떠섰고 **김일성**경기장과 만경대소년단야영소, 중앙동물원이 훌륭히 개건되였다.

세계적찬탄의 목소리가 조선에 집중되고있다. 그 하나가 상상밖의 짧은 기간, 단숨에 일떠섰다는것이다.

5 년은 장구한 력사의 길이로 보면 순간, 순간 또 순간이다. 이 력사의 한순간에 조선에서는 거대한 변혁이 일어났다.

수많은 기념비적창조물들이 20 년이나 10 년이 아니라 또한 5 년이나 3 년이 아니라 보통 몇달사이에 말하자면 단숨에 일떠섰던것이다.

10 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은 옛말로 되였다. 1 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새로운 시대어가 창조되였다.

말그대로 10 년을 1 년으로 주름잡아 내달리는 만리마의 속도, 만리마의 기상으로 세계를 디디고 솟구쳐오르는 기적이였다.

영국작가 찰스 스노우은 1930 년대 쏘련을 방문하고 《1931 년 쓰딸린이 <우리가 발전된 나라들보다 50~100 년 뒤떨어졌다. 우리는 그 기간을 10 년동안에 달려야 한다. 우리가 이것을 수행하든가 아니면 영원히 후진국으로 남아있어야 한다.>라고 하였는데 쏘련에서 가장 위대한 혁명이 일어났다. 일대 비약이 일어났다.》고 말하였다고 한다.

이 변화는 엄연한 력사적사실이라고 본다. 적들까지 인정한 거대한 전변이였다. 로씨야에는 마차는 오래 메우지만 달리기 시작하면 쏜살같다는 말이 있다고 한다. 이 완강한 정신이 낳은 전변이 아니겠는가고 본다. 헌데 그 10년에 해설을 첨부한다면 공민전쟁승리로부터 쏘도전쟁전, 다시 서술하면 평화적시기에 일어난 변화라는것 역시 엄연한 사실이라고 본다.

그러나 조선의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일어난 도약은 전쟁보다 더 엄혹한 도전과 시련속에서의 도약이였다. 이렇게 놓고 보면 《사회주의리상국, 문명국건설에서의 조선의 도약이야말로 세기적기적》이라고 하는 세계언론계의 격찬의 목소리는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단숨에 만리를 달린다는 전설속의 준마와 같이 전진하는 조선의 불굴의 공격정신이 낳은 력사적기적이다.

주체 106(2017)년에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다.

금속공업부문에서는 주체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 자기 식의 산소열법용광로가 일떠서 무연탄으로 선철생산을 정상화할수 있게 되였다.

화학공업부문에서는 자립적토대를 강화하고 5개년전략의 화학고지를 점령할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았다.

기계공업부문에서는 새형의 뜨락또르와 화물자동차생산목표를 성과적으로 점령함으로써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와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다그쳐나갈수 있는 튼튼한 기초를 마련하였다.

방직공업, 신발과 편직, 식료공업을 비롯하여 경공업부문의 많은 공장들에서 주체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체의 기술, 자체의 설비로 여러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힘있게 벌려 인민소비품의 다종화, 다양화를 실현하고 제품의 질을 높일수 있는 담보를 마련하였다.

농업부문에서는 과학농법을 적극 받아들여 불리한 기후조건에서도 다

수확농장과 작업반대렬을 늘이고 례년에 보기 드문 과일풍작을 안아왔다.

조선인민은 미래과학자거리의 2배에 달하는 웅장화려한 려명거리를 현대건축형성의 본보기, 표준으로, 로동당시대의 선경으로 일떠세웠으며 대규모의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을 끝내고 산림복구전투 1단계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자력자강의 위력, 사회주의자립경제의 잠재력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발표하신 40돐을 맞으며 교육부문에서는 당 제7차대회 결정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조선의 사회주의교육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고 교육사업전반을 일신시키는데 이바지하는 자랑찬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보건부문에서는 당의 예방의학적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 의료봉사사업이 더욱 개선강화되여 인민들에게 무상치료제에 의한 당과 국가의 의료상혜택이 충분히 가닿도록 하였으며 나라의 보건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주체 106(2017)년 9월부터 공훈국가합창단, 모란봉악단, 왕재산예술단의 합동순회공연이 대성황리에 진행되여 온 나라를 혁명적랑만과 전투적기백으로 들끓게 하는 예술공연활동의 본보기가 창조되였다.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일떠선 기념비적창조물들과 이룩된 자랑스러운 성과들은 만리마속도로 인민의 최고리상실현을 위해 나아가는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참모습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번개같은 공격정신으로 조국땅우에 무겁게 실어놓는 거창한 기적의 창조물들과 함께 이 땅에서 만리마라는 말은 새로운 시대어로 되였다.

1년이라는 기간은 력사에서 한순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조선인민은 한해동안에 조국력사에 찬연히 빛날 자욱을 남기였으며 주체혁명위업완성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였다.

한방울의 물에 우주가 비낀다는 말이 있다.

만리마라는 한마디의 말을 통하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두리에 전체 인민이 굳게 뭉쳐 비약과 혁신에로 폭풍쳐 내달리는 조선의 벅찬 현실을 엿볼수 있다. 이 말은 끝없이 부강번영할 조선의 미래에 대하여 확신할수 있게 한다.

적대세력들의 책동을 비롯한 앞길을 가로막는 온갖 장애물들이 산산이 부서져나가고 나라의 방방곡곡에 자력자강의 자랑스러운 창조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솟구쳐오르고있는 현실, 약동하는 젊음으로 눈부시게 비약하는 조선의 기상은 인민의 힘으로 전진하는 사회주의의 우월성, 인민의 힘에 의거할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 진리를 웅변으로 새겨주고있다.

만리마!

이 말은 최대속도로 비약하고 더 높이, 더 빨리 내달리는 조선의 영원히 빛나는 상징으로 될것이다.

맺 는 말

인민의 나라 조선은 5 천년민족사에 최고번영기를 맞이하고있다. 조선은 자기의 력사에서 가장 강대하고 무한대의 힘을 세계앞에 분출시키고있다.

인민대중이 영원하듯이 인민을 위하여, 인민과 함께 투쟁하는데 영원한 정의와 승리가 있다.

세계는 조선이 위대한 인민의 힘과 슬기를 총폭발시켜 강성번영하는 천하제일강국을 어떻게 이 땅우에 일떠세우는가를 똑똑히 보게 될것이다.

성스러운 조선혁명의 이름과도 같고 승리의 력사와도 같은 인민을 하늘처럼 받들고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며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에 의거하기에 영원히 주체혁명위업의 대로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의 길로 펼쳐지게 될것이다.

조선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명곡 《조국찬가》의 선률이 장중하게 울린다.

…

창공에는 우리 국기 무궁토록 나붓기고
이 땅에선 모든 꿈 이루어지리
그대를 영원히 사랑하리라
빛나라 이 조선 인민공화국

노래는 조국의 세계를 감정의 론리, 사색의 론리에 따라 하나둘 차례차례 펼치기 시작하여 인민이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사랑할수 있는 조국은 인민의 모든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진정한 인민의 조국이라는 대답을 주고있다.

소박하면서도 장중하고 평범한것 같으면서도 위대하며 부드러우면서도 힘과 열정에 넘친 이 명곡에는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음악세계, 애국세계, 인간세계의 본질과 특징이 거울처럼 비껴있다.

《조국찬가》에는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인민의 나라를 끝없이 사랑하고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강국으로 빛내이며 그 위용을 영원토록 떨쳐갈 확고한 의지가 맥박치고있다.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애국가-《조국찬가》와 더불어 인민의 나라 조선은 세계에 위용을 떨치며 무궁토록 번영할것이다.